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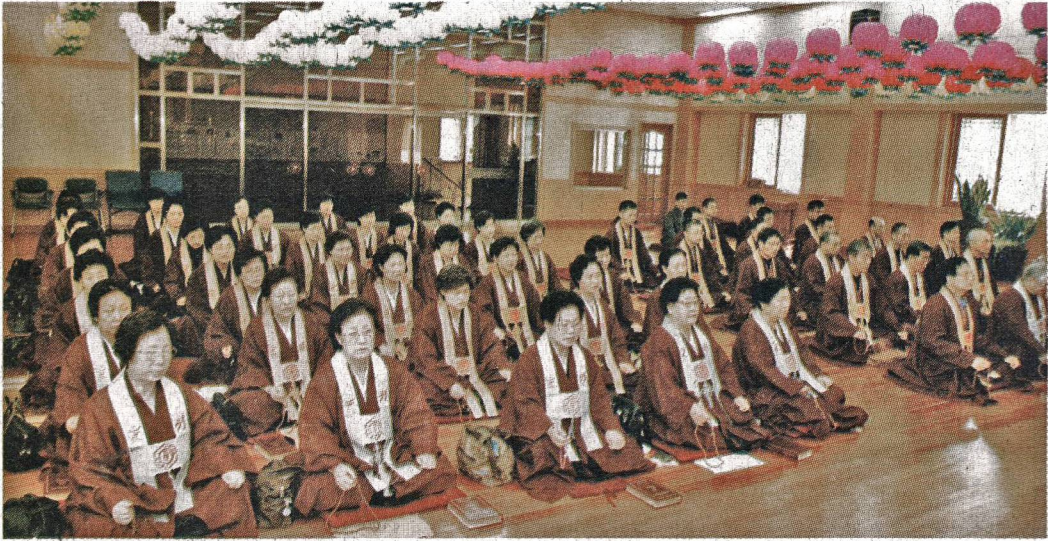


충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중단입니다.



충지중, 제74회 추계 강공회 개최

중단발전위한 다양한 논의



▲ 강공회 개강발사

불교충지중(통리원장 원송)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통리원에서 제74회 추계강공회를 개최한다.

강공회에서는 원의회, 재단이사회,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종의회, 승단총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결산을 심의 결의하고, 중단 현황과 문제점을 조망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추계강공회는 원의회, 재단이사회 연석회의를 필두로 복지재단, 중앙종의회, 승단총회 등의 주요 일정으로 진행된다.

원의회, 재단이사회 연석회의에서는 과년도 통리원, 전담건설, 유지재단, 법장원 결산 심의를 비롯해 유지재단 이사 선출, 감사선출,

등의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복지재단 회의에선 결산 심의와 함께 임원선출 이사 건, 등의 토의가 열린다.

이와함께 중앙종의회에선 지난해 통리원, 전담건설, 유지재단, 법장원 결산 심의를 비롯해 중단 산하 각 기구 임원의 선출 추천 건, 등의 안건을 상정 처리한다.

이밖에 승단총회에서 각 기구 임원 선출과 중단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충지중은 이번 추계강공회에서 심도있고 효율적인 중단운영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 중단중흥의 시급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제3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22일부터

‘재가불교와 사회 참여’ 주제



▲ 제2회 국제재가지도자 대회 월정사 템플스테이

불교충지중은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서울과 강원도 월정사 등지에서 ‘재가불교와 사회참여’를 주제로 제3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The 3rd Lay Buddhist Forum)를 개최한다.

충지중 교육원이 주관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2007년에 첫 대회가 개최된 이래 올해

로 3년째를 맞는다.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의 재가불자의 역할 모색에 주안점을 두고 대회 주제를 ‘재가불교와 사회참여’로 결정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14개국 25명의 해외 재가불교지도자들과 재가불교운동에 관련된 학자와 승려들이 참가한다.

승속을 초월해 열린 불교를 표

방하는 국제재가 불교지도자대회는 참가자에게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재가불자는 물론 출가 승려도 함께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대회 첫날인 22일에는 올림피아크 템플스테이를 환영만찬, 충지사 참배 행사가 마련되며, 23일 오전에는 ‘재가불교와 사회 참여’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려 각국 참가자들이 의견발표를 한다. 23일 오후부터 24일까지는 강원도 월정사에서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며 생활불교 관련 세부실천 방안 논의와 각국 대표의 재가불교활동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25일에는 강릉 일대 유적지와 박물관 탐방, 민속공연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세미나가 열려 각국 참가자들이 의견발표를 한다. 23일 오후부터 24일까지는 강원도 월정사에서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며 생활불교 관련 세부실천 방안 논의와 각국 대표의 재가불교활동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25일에는 강릉 일대 유적지와 박물관 탐방, 민속공연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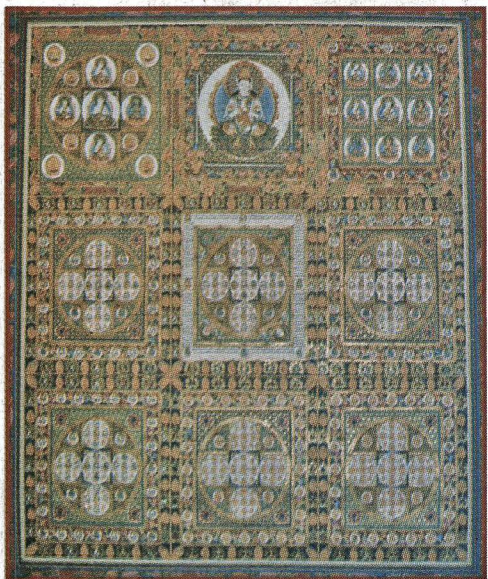
효강 종령 예하는 “이같은 의미 있는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재가불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의 협력과 단결을 통해 생활불교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행사를 통해 “재가불교종단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생활불교를 리드하는 충지중의 위상을 드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회조직위원장 화령(華靈·불교충지중 중앙교육원장)은 “세계의 많은 재가불자들은 생활불교에 대한 사상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이같은 토론의 장을 원하고 있다”며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가 불교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령 정사는 이와함께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의 흐름에 맞춰 기획된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가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좋은 결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뜻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10면)

네팔 만다라 순회특별전 연다

개막법회 21일 충지사



▲ 금강계 만다라

불교충지중이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지사 2층 원정기

네팔에서 네팔 만다라 순회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금강계, 태장계 만다라 10매와 네팔계 칼라차 크라 만다라 20매, 아미타불, 관음보살 탱화 등이 전시되며, 양부 만다라 친견 참배와 관람 행사가 3층 서원당에서 별도 진행된다.

개막법회는 21일 오후 3시 충지사 3층 서원당에서 충지중과 네팔 불교의식으로 거행

(주)한네인투어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한 네팔대사관, 아시아인권문화연대가 후원한다.

네팔 만다라 순회특별전은 올해 5월 네팔 관광청장이 불교종단협의회 의장 지관 스님을 방문해 네팔 불교예술품 전시를 의뢰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지난 9월 조계사 나무 갤러리에서 초회 전시전이 열린 바 있다.

만다라는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불화(佛畵)를 말한다. ‘만다’는 ‘본질(本質), 심수(心髓), 정수(精髓)’의 뜻이고, ‘라’는 ‘얻는다’라는 뜻으로, ‘본질을 얻는다’ 일체제법을 구축한다’는 의미이다.

종립 동해中 제42회 개교기념식 거행

16,000여 졸업생, 각계 주도적 역할



▲ 해오름관에서 열린 개교기념식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가 9월 24일 오후 2시 해오름관에서 개교 42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충지중 원송 통리원장은 축사에서 “우리학교를 졸업하신 많은 선배님들은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재학생들은 선배님의 훌륭한 모습을 거울삼아 학생으로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송 통리원장은 이와함께 “언제나 남을 돕고 베푸는 데서 만족을 구하며, 참된 진리를 깨우쳐 나가는 깨끗한 기쁨을 누리는 동해인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해중학교 김현우 이사장은 축사에서 “본교는 종립학교로서의 특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여 생활불교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을 가꾸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중학교 김문수 교장은 기념사에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공부함은 물론 나라의 주인공이 될 미래를 위해 높은 이상을 세우고, 거기에 걸맞은 알찬 실력을 쌓아간다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교기념식에선 강영봉 교사가 30년 근속, 김춘삼, 송인근, 김연자 교사가 20년 근속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정성규 학생의 5명이 중단 장학금을 받았다.

이날 행사엔 정각사 대원 주교와 성화사 지광 주교,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이명우 위원, 동해중학교운영위원회 이성호 위원장, 동해중학교동창회 김진도 부회장, 김병준, 박수현 전직교장, 등이 참석했다.

제74회 추계강공회

교화와 중단 발전 방안을 논의 하고자 추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는 수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충기38년 10월 28일(수)~10월 30일(금)
- 장소 : 불교충지중 통리원
- 대상 : 중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충지중 통리원장 원 송



사 설

추계강공에 바란다

추계강공회는 전국 사원에서 교화를 하고 있는 승단의 모 든 승직자가 모여서 교육과 함께 각종 회의를 여는 자리이다. 특히 추계강공은 본년도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가 포함되어 있어 그 중요도가 크다고 하겠다.

강공회(講工會)는 총지종 창종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 창종 초기부터 매년 2회에 걸쳐 전국 스승들이 본산에 모여 강공회를 개최해왔다.

종조 원정 대성사는 밀교의 중흥과 구국도생(救國度生)의 대비원(大悲願)을 세우고 이 땅에 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 하였다. 창종 초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조님은 각별한 열정과 정진력으로 교육불사(敎育佛事)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전국의 스승들이 모여 경전 공부를 하면서 교화 경험을 서로 얘기하고 포교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토론회의 장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후 강공회는 승직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교화방편의 정보를 나누는 산 교육장이 되어 왔다. 그 전통은 계속 유지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이같이 중요한 강공회가 조금 더 알차고 발전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각종 회의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할 강공회에 회의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통리원 집행부와 각 회의 의장과 해당위원들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여 빠른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해야 한다. 종의회의 경우 종의원이 아닌 승직자들은 따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시대변화에 걸맞고 종단 교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도 아쉬운 부분이다. 교육프로그램이 과거와 다르지 않고 답습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시간적 제약이 따르고 여건이 여의치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법이다. 교양 습득과 함께 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이와관련해서 많은 변화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먼저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프로그램 강사 배정에 있어서는 종단 내부 강사에 비해서 외부 강사의 비중이 너무 적다. 외부강사의 경우 학계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가나 명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류에 부합하는 정보를 습득하고, 자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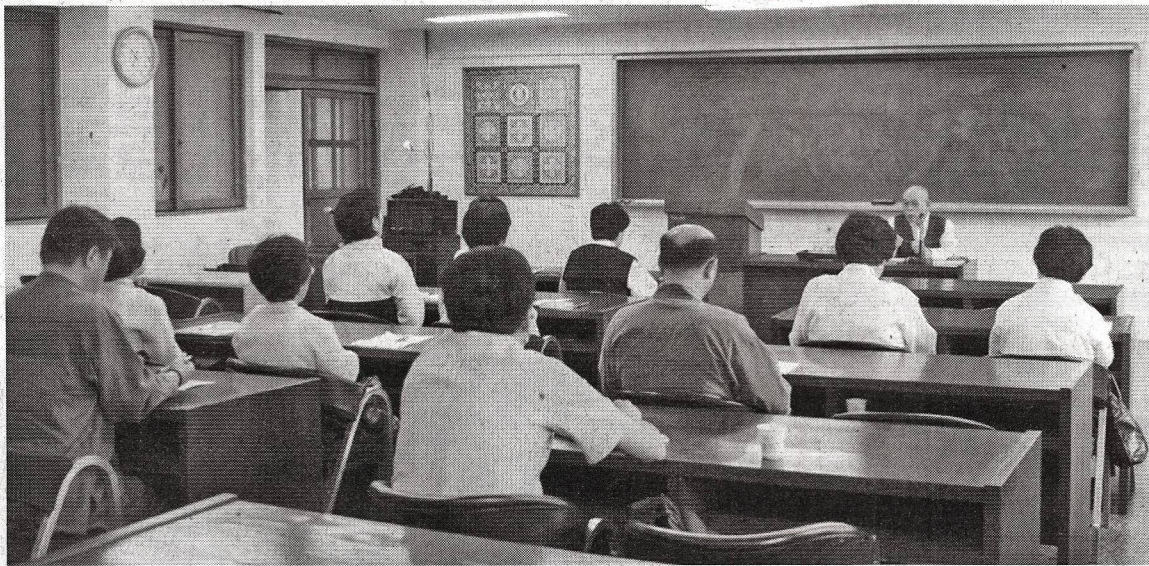
한 가지 더 언급할 점은 강공회 기간동안 서로간에 모범을 보이고 수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속소의 잡자 리에서부터, 서원당 앞의 자리, 경내에서의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대중이 지켜야 할 규칙을 잘 지키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하겠다. 아무쪼록 추계강공회가 승직자 모두가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종조법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세상에 나온 것은 큰 구름이 일체 만물을 윤택하게 함과 같아서 목마른 중생으로 다 고통을 떠나게 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니 중생을 안락케 함은 세상에 능히 나를 미칠 자가 없느니라. <화엄경>

승직자 보수교육 실시

종령 예하, 신해행증 강의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 효강 종령 예하

총지종은 전국사찰의 정사와 전수를 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실시하였다. 9월 17일, 18일은 백월사에서 총정·전라교구스승들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9월 22일, 23일은 정각사에서 교육이 있었다. 9월 24일, 25일은 통리원에서 서울·경인교구 스승들의 교육이 열렸다.

이날 효강 종령 예하는 정신교육을 통하여 스승들에게 "전국 각 교구의 승직자 여러분들이 이번 교육에 열심히 참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말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 했는가 자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스승들의 재

충전 교육(화령정사: 천수경, 법경정사: 대승장영 보왕경) 및 현대인이 갖고 있는 특징, 고민,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중심(지성정사: 불교의 현대적 조명, 도현정사: 불교상담심리)으로 강의가 있었다.

진언수행의 길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곳을 응공처(應供處) 또는 공양처(供養處)라 한다. 응공(應供)은 '바라봐 공양받을 만하다'는 뜻으로 바로 부처님을 가리킨다. 공양받은 음식을 먹는 장소이므로 공양처이고 공양에 응하는 곳이므로 응공처이다. '공양'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식사를 한다'는 뜻이고,

응공처(應供處) 예절

둘째는 '부처에게 바친다'는 뜻이다. 공양이란 '공급(供給)하여 자양(資養)'한다는 의미이다. 부처님은 공양을 받는 분이나 공양을 올리는 사람이나 공양으로 바쳐지는 물건이나 모두가 다 청정해서 그 세 가지가 서로 닮아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양은 매우 중요하고 복을 심는 씨앗이 되는 것이다.

-응공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음식을 마련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처사보

살(공양주)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응공을 하기 전에 법계정인(法界定印)을 하고 부처님과 부모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도록 한다. 이를 심고법(心誦法)이라 한다. 기도가 끝나면 금강합장으로 마친다. 기도문을 외을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혼자서 묵송(默誦)으로 한다

"부도님 낱아서 길러주시고/ 부처님 모든 것 다게 주시니/ 세세생생 그 은혜 갚겠습니다"

-응공처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한다.

-자리를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면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먹을만큼의 음식을 가져가되 음식을 더 가져 가기 위해 여러 번 일어서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한다.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응공을 마친 후 식기 등은 자신이 직접 정리하도록 한다.

-앉았던 자리는 자신이 직접 정리하여 놓는다.



▲불교합창단연합회 임원 기념촬영

총지종 서울·경인 합창단 임원교육 참가

불교합창단연합회의 임원연수교육

서울·경기 불교합창단연합회가 주최한 불교합창단연합회 임원 연수교육이 9월 14일 서울 갈현동 수곡사에서 열렸다. 총지종 합창단은 단장 이연수보살, 총무 박정희보살 외에 5명의 보살이 참석하였다.

이날 연수교육은 사진으로 알아보는 불상(동국대 최동순교수)과 노랫말쓰기의 비밀(작곡가 김현성) 강의가 있었다. 이어서 '불교합창단의 운영과 조직 문화'라는 주제로 조별토론이 있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효율적인 관리 등 다채롭게 의견이 논의 되었다. 연합회는 이 연수가 많은 정보와 지식의 접하여 음성공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경기 불교합창단 연합회는 1989년에 결성됐으며, 각 종단의 합창단으로 꾸며진 연합단체로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전국불교음악제 등 각종 불교행사에 참석하여 불교신도와 일반인에게 음성공양을 해왔다.



▲총지사와 정심사 교도들

총지사 교양대학생 가을 나들이 국립수목원, 봉선사 탐방

총지사 교양대학에서 공부하는 교도들이 가을 소풍을 다녀왔다. 9월 26일 총지사 선도원주교, 정심사 진일심주교, 화령정사 및 교도 포함하여 모두 20명이 가을의 화사한 햇빛과 맑은 바람을 맞고 왔다.

알림방

- ▶ 10월 2일 수계사 해산주교 원적
- ▶ 10월 16일 - 19일 한중일 불교대회
- ▶ 10월 21일 - 11월 1일 네팔 만다라 전시회(총지사내)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9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천사	이회권	09.23	10,000
개천사	경 원	09.09	20,000
개천사	윤 찬	09.18	10,000
개천사	무명씨	09.25	5,000
관성사	관성사복지기금	09.10	200,000
관성사	무명씨	09.10	10,000
관성사	조정숙	09.21	10,000
관성사	수 정	09.01	30,000
관성사	김봉기	09.23	10,000
관성사	해정, 정법계	09.23	20,000
관성사	박현숙	09.24	10,000
관성사	황성녀	09.29	10,000
관성사	이혜원	09.30	5,000
관성사	정인순	09.15	10,000
기로원	대 관	09.21	10,000
기로원	대자행	09.21	10,000
기로원	밀공정	09.21	10,000
기로원	범수원	09.21	10,000
기로원	법장화	09.21	10,000
기로원	법지원	09.21	10,000
기로원	불멸심	09.21	10,000

기로원	사홍화	09.21	10,000
기로원	상지화	09.21	10,000
기로원	수중원	09.21	10,000
기로원	총지화	09.21	20,000
단음사	범연지	09.18	5,000
단음사	범연지	09.29	5,000
단형사	이재은	09.10	10,000
단형사	행원심	09.10	10,000
덕화사	하순옥	09.04	10,000
만보사	지 성	09.09	20,000
만보사	승효제	09.09	20,000
만보사	유복근	09.21	30,000
밀인사	이재호	09.03	10,000
밀인사	이재갑	09.09	20,000
밀인사	원 당	09.16	10,000
밀인사	묘심해	09.16	10,000
밀인사	이혜성	09.17	20,000
밀인사	무명씨	09.18	10,000
밀인사	이재호	09.30	10,000
밀인사	정정희	09.30	5,000
밀인사	이연수	09.30	10,000
밀행사	석우성	09.02	20,000
밀행사	석우성	09.24	20,000

법천사	지 정	09.21	10,000
법천사	원만원	09.21	10,000
법천사	박말조	09.21	5,000
법천사	김정숙	09.30	5,000
벽통사	이회숙	09.03	10,000
벽통사	범 일	09.21	10,000
백월사	류승태	09.18	10,000
백월사	이갑진	09.25	10,000
백월사	박인철	09.25	5,000
백월사	박인국	09.25	5,000
삼밀사	인법계	09.10	10,000
삼밀사	원 송	09.10	10,000
삼밀사	전현자	09.10	20,000
선림사	황귀석	09.18	10,000
선림사	정복지	09.18	10,000
선림사	심지장	09.18	10,000
성화사	우담바라	09.14	50,000
수인사	공정원	09.07	10,000
수인사	무명씨	09.08	50,000
수인사	김봉기	09.29	10,000
시법사	진여행	09.23	10,000
실보사	이순옥	09.28	5,000
실보사	보명심	09.29	10,000

실보사	우 인	09.29	10,000
실보사	송희준	09.23	10,000
실지사	정우석	09.23	10,000
실지사	이화수	09.21	20,000
실지사	임순복	09.23	10,000
운천사	반야화	09.24	10,000
운천사	정호호	09.28	5,000
자석사	이판도	09.25	20,000
정각사	박수빈	09.03	10,000
정각사	구정희	09.14	20,000
정각사	박수빈	09.23	10,000
정각사	박정희	09.29	100,000
지인사	허성동	09.21	20,000
총지사	이수영	09.01	20,000
총지사	최순전	09.02	20,000
총지사	선도원	09.10	10,000
총지사	최해선	09.21	20,000
총지사	이인성	09.21	30,000
총지사	박계숙	09.21	20,000
총지사	유성열	09.25	10,000
총지사	홍연수	09.30	10,000
총지사	홍지희	09.30	10,000
통리원	지 정	09.21	20,000

화음사	강순란	09.03	10,000
화음사	하창선	09.16	6,000
화음사	권정희	09.16	5,000
화음사	정옥식	09.16	5,000
화음사	수 현	09.16	10,000
화음사	자심관	09.16	10,000
해정사	최영래	09.14	10,000
해정사	오혜민	09.23	10,000
해정사	서 령	09.23	10,000
해정사	혜원정	09.23	10,000
	김위택	09.02	10,000
	김한옥	09.21	100,000
	박중순	09.18	5,000
	안효정	09.28	20,000
	이숙남	09.12	30,000
	췌신바	09.11	120,000
	췌신바	09.14	123,000
	최순전	09.29	20,000
	황만도	09.30	1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로 소속사원명, 통신훈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 됩니다.

풍경소리

말을 할 때는



자위로 말하지 말고
욕망으로 말하지 말고
화를 내면서 말하지 마
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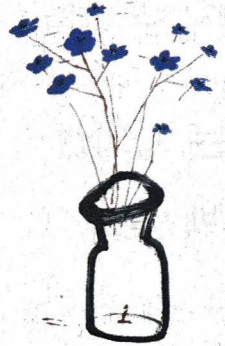
자애로움으로 말하고
내용을 알면서 말하고
상대를 고려하면서 말
을 하십시오

잘못 말했다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묘원(한국위빠사나 선원장)

스트레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제바달다는 부처님
의 사촌이자 사랑하
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제바달다는
교단에 불화를 일으
키거나

끊임없이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한번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제바달다는 나에게 있어 선지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상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주거
나 배우자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기 보다는 이 분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선지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손기원(지혜경영연구소장)

마음 속의 칼을 버려라



부처님을 해치려고
이교도 한명이 늘 칼
을 품고 다니다가 어
는 신도 집에서 부처
님과 마주쳤다.

부처님은 이미 그를
알고 있었기에 문을
닫았다.

“어째서 사람을 만
나지 않고 문을 닫는
가?”

“이 문을 열게 하려
거든 먼저 그 칼을 버
려라.”

이교도는 문만 열리
면 맨주먹으로도 처
치하리라 생각하고 칼
을 버렸으나 문은 열리
지 않았다.

“칼을 버렸는데 왜

문을 열지 않는가?”
“나는 네 마음속의 악한 칼을 버리라는 것이
지, 네 손에 든 칼을 버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
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입에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원각(시인)

VISUAL
불교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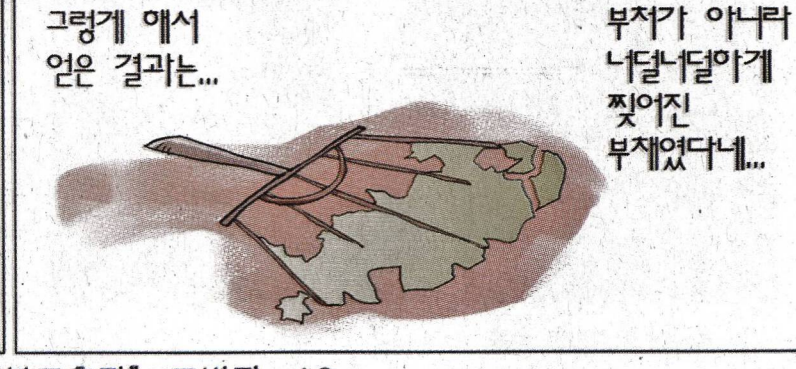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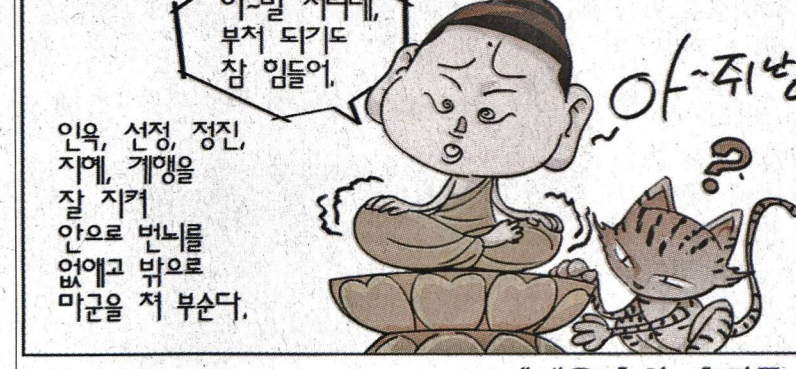
제4화

佛

부처

부처를 이루려면

글/그림 정수일
http://www.drawing라훌라.kr
http://drtawing-rahula.
ohpy.com



*내용 출처-총지중 "불교총전" 교법편 p16

이달의 명상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네.
앉으나 서나 늘 따라 다니고
말 할 때나 안 할 때나 함께 있으며
털끝만큼도 서로 떨어지지 않으니
몸에 그림자 따르듯 하는구나.
부처님 간 곳 알고자 하는가?
단지 이 말소리 나는 곳이 부처로세.

-부대사 傅大士

夜夜抱佛眠 (야야포불면)
朝朝還共起 (조조환공기)
起坐鎮相隨 (기좌진상수)
語默同居止 (어묵동거지)
纖毫不相離 (섬毫불상리)
如影影相似 (여신영상사)
欲識佛去處 (욕식불거처)
只這語聲是 (지자어성시)

2009년도 햇보리자 총지중108염주

천은사 보리자(7mm)를 사용하여 2009년도 햇 보리수 108염주를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보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천은사 보리자이고, 모주는 패다라에
육합상을 조각했으며, 간주로는 천연 백수정 10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패다라란 인도에서 종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인 나뭇잎을 말
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나뭇잎에 새겨두었으므로 바로 경전이 되었
다고 합니다. 그 나무 열매로 모주를 만들었기에 부처님 말씀을 늘
수지한 경전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패다라 모주 108염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패다라(貝多羅) : 經은 梵語로 수다라(sutra)라고 하는데 바로 번역
하면 선. 관(線. 貫)이 된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패다라 나무
잎에 써서 끈으로 엮었기 때문이다...



구입문의 : 전화 02. 552-1080-3 통리원 또는 총지중 각 사원 주교(총지중 교도에 한하여 1개당 ₩40,000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민다리의 복지세상 13

외국의 불교사회복지 사례를 찾아서

불교사회복지의 특성을 살린 복지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찰에서 자체적인 비용으로 불교사회복지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사찰복지'를 병행해서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복지활동의 역할모델이 될 만한 사례들로 대만의 자제공덕회와 불광산사의 복지활동, 미국의 켄 피스메이커 오더의 수행과 복지를 동시에 실천하는 모습을 알아본다.

(1) 대만 자제공덕회의 복지활동

대만의 자제공덕회는 1966년 4월 14일 대만 보명사에서 '불교구난자제공덕회'로 출범하였다. 불교의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자원봉사 및 후원단체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은 85세 이상의 가난하고 병든 노인들을 후원하는 일이었는데, 동참한 회원은 출가제자 5명, 가정주부 30명이었다.

그러나 현재 자제공덕회는 전국에 4개 병원을 갖고 있고, 구제, 의료활동 외에도 불교자제대학 등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시스템을 마련, 어릴 때부터 불교와 사회봉사를 배우고 있다. 대만 화련의 불교자제종합의원 3층에 위치한 호스피스 전문병원인 심연병원은 말기 암 환자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마지막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곳으로, 20명 정도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환자 1명당 자원봉사자가 1명씩 배치돼 수발과 정신적인 안정을 돕고 있다.

자제공덕회의 활동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찰이나 단체의 차원을 넘어서 거대한 사회조직이며, 자원봉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자제공덕회는 불교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일종의 '실천하는 사찰, 행동하는 불교조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자제공덕회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된 것은 임의의 봉사조직에서 벗어나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자제병원이 개원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말 현재 공덕회의 자제위원은 약 12,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연간 후원금액은 약 1,200억 원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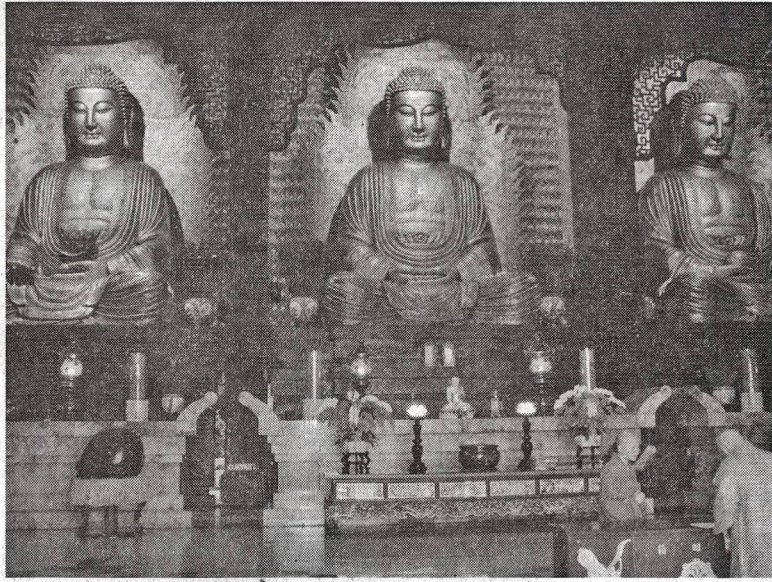
(2) 대만 불광산사의 복지활동

불광산은 대만의 남단 고평현 대수향에 자리잡

고 있는 현대적 불교 사찰이다. 불광산사는 성운 대사가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불교교육과 포교를 위해 현대적 시설로 세워진 대만불교의 새로운 도량인데,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수행하는 대만의 최대의 사찰로서 국제적인 불교성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불광산사는 중국불교연구원을 비롯하여 도서관, 대비전, 조산회관(신도회관), 대지전, 대불성, 불광정사(양로원), 대자육유원(고아원), 활동중심(체육관, 대회장용), 보문중고등학교, 생활대루(기숙사), 불이문, 만수원(납골당), 대웅보전, 마죽원(다목적 신도회관) 등의 규모로 되어있다.

불광산사는 불교의 포교와 인간정도의 실현을 위하여 대중화, 학교화, 국제화, 복리화의 시방총림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복리화의 실현은 시방삼보의 가피가 시방불자에 두루 미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재앙을 구원하고 빈민을 구제하며, 노인을 위로하고 고아



▶ 불광산사 삼존불

원하여 호스피스케어를 비롯하여 사회적 봉사활동과 불교경전의 가르침을 조화롭게 여여하기 위한 국제적인 교육의 장으로서 켄 피스메이커 오더의 허브 역할을 한다. 선수행 및 명상프로그램과 요가수련 및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호텔이나 수련원 시설을 비롯하여 야외공연장 건립과 온천 개발 등 부대사업도 병행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신수행에 중점을 두고 서서히 진행시켜 가고 있다. 이 센터는 개인보다는 단체를 옹호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서, 뜻을 같이 하는 제자들을

이 세계에 널리 뻗어 나가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글래스톤 선사가 세운 불교복지의 이상향인, 그레이스톤 재단(Greystone oundation)과 그레이스톤 베이커리(Greystone Bakery)는 뉴욕 외곽에 있는 저소득지역인 용커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재단의 주요 수입원인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는 뉴욕의 고급호텔이나 백화점, 식당 등에 납품하는 제과회사로 유명브랜드인 빈앤제리 아이스크림(Ben & Jerry Ice Cream) 회사에도 케이크와 타트(tarte, 파이류)를 납품한다. 이 베이커리의 수입은 2003년에 이미 1500만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성공적으로 자리잡았으며, 직원들 모두 밝고 활기에 차 있다.

-지정(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자제공덕회 - 행동하는 불교조직

불광산사 - 교육, 포교 국제적 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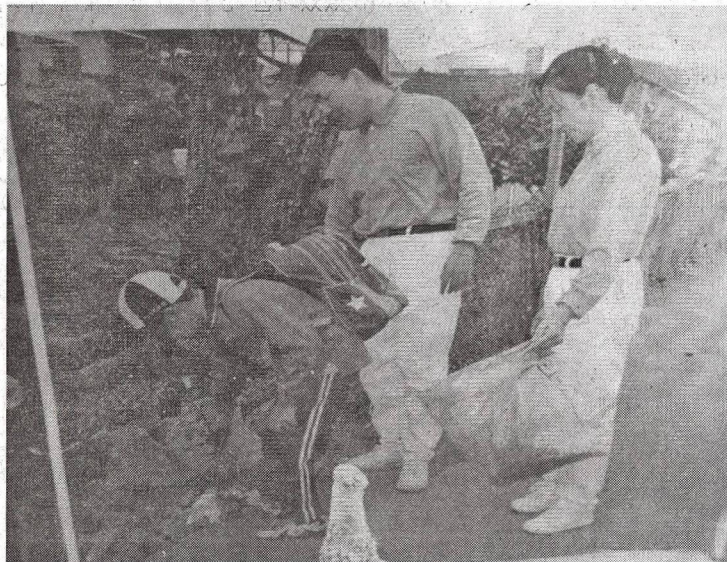
를 보살피며, 의료를 베풀어 병든 자를 치료하며,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출세적 정신으로 입세적 사업을 하자'는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해 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도록 하며, 세상을 경영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교육시켜 사회에 나가 대중을 위한 많은 자선복지사업을 하고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여 인류의 마음 고향이 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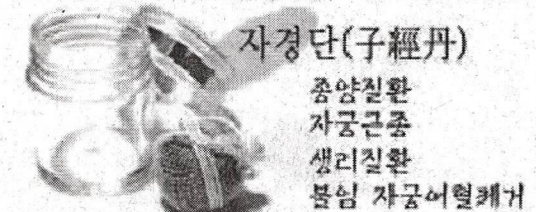
(3) 미국의 켄 피스메이커 오더(Zen Peacemaker Order, ZPO)

켄 피스메이커 오더(ZPO)의 마에즈미 센터(The Maezumi Institute)는 넓은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데, 환경주의자들이 견해를 올 정도로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으로 지은 나무 건물이다. 이곳이 현재 켄 피스메이커 오더의 본부이며 글래스만 선사가 이끄는 마에즈미 센터의 법당이 있는 건물이다. 미국의 다른 지방에서 온 종교 운동가들과 세계 각국의 불교커뮤니티 대표들이 모여 법회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마에즈미 센터는 2006년에 개



▶ 복지단 환경보호 활동



자경단(子經丹)

중양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불임 자궁어혈케거

생리약분석기



자동필강진단기



초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치료기



자궁약기



여성美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불임, 임신오제(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비만 클리닉

- 여성: 자궁 다이어트
- 남성: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평 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오후 1시~오후 2시

죽비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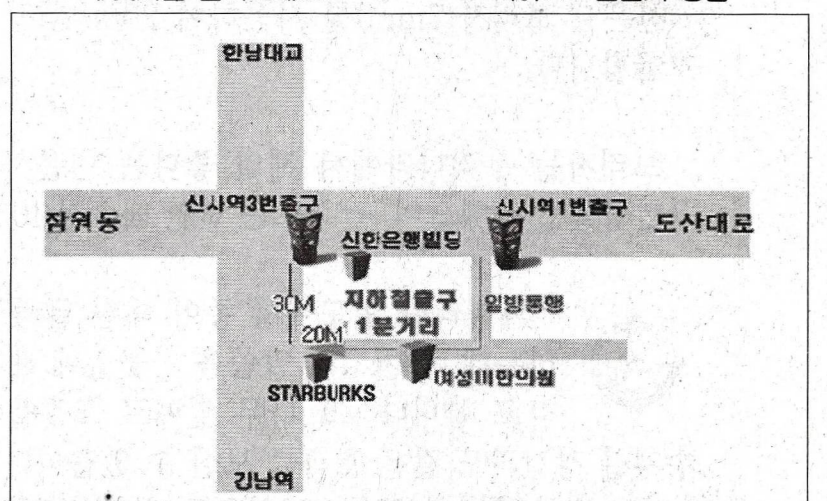
쓸모없는 말을 엮어 늘어 놓는 천 마디 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마디가 훨씬 뛰어난 말이다.
쓸모없는 구절을 모아 엮어 놓은 천 편의 시 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시다.
쓸모없는 구절로 이루어진 백 편의 시를 읊기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것이다.

(법규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BS "전문의 상담"



지상설법

법시(法施)- 삼종시(三種施) 중 최상의 공덕



법 공

(기르스승)

보시바라밀다의 삼종시(三種施)중 두 번째 법시(法施)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경(經)에 설하시기를 법시공덕(法施功德)은 삼종시 가운데 최상이라 하시고 두 서너가지 승(勝)한 이유를 “첫째, 재시(財施)는 다할 때(有限)가 있지만 법시(法施)는 증장(增長)하여 다함이 없고(無限) 둘째, 재시는 받으면 현재만 이익(現世利益)하고 법시는 받으면 현재와 미래세가 다함께 이익하고 내지 무량세에 이르기까지 남이 침해하거나 빼앗는 일이 없고 무량정등보리(無量正等菩提)에 이르기까지 서로 버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셋째, 재시는 주는 자는 이익을 얻지만 받는 자는 이익이 없으나 법시는 자타(自他)가 함께 이익하고 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발심하여 속히 무상보리(無上菩提)에 나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권 제4 보시바라밀다품)

이상에서와 같이 법시가 재시보다 그 공덕이 수승(秀勝)한 이유를 알 수 있다 하겠습니 다. 이치로 미루어 보더라도 형상 있는 물질은 모두 허망하고 무상하며 유한한 것이지만(범유상 개시허망 凡所有相 皆是虛妄), 진리(法)는 형상이 없어 허망과 무상을 초월해 있고 무한한 것입니다. 중생들은 다생겁으로 물질과 유상(有相)에 주로 집착해 업(業)을 지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 물질(財)이나 유상만을 있는 것(存在)으로 알고 형상없는 진리나 법에 대하여는

무지하고 무관심하며 그 자체를 불신 부정하는 경향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있는 행자(行者)는 법시공덕의 수승한 이치를 알아서 부처님께서 깨쳐 밝혀 놓으신 진리를 잘 익혀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중생들을 위하여 열심히 법을 들고 널리 경을 공부하여 일체 중생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광선유포(廣宣流布)하여 무량한 법시공덕을 지어가야 하겠습니까. 끝으로 현자오복경(賢者五福經)의 법시공덕 송(誦)을 한 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 법시공덕(法施功德)
부처님이 이리시되 고통있는 사람에게 현자법(賢者法)을 설하여서 교를 믿게 인도하면 경을 설한 인연으로 오복덕이 있느니라.
1. 살생하는 이가 살생하지 않는 고로 장수함을 얻게되며,
2. 투도하는 이가 도적하지 아니하고 능히 보시하는 고로 대부(大富)함을 얻게 되며,
3. 법을 듣는 이가 화기있는 안색으로 기쁜 마음 내는 고로 단정함을 얻게 되며,
4. 법을 듣는 이가 불법승을 공경하게 받들도록 하는 고로 명성 멀리 드러나며,
5. 법을 듣는 이가 심심법(甚深法)과 묘지혜를 깨쳐도록 하는 고로 총명하고 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니라.
이와같은 인연으로 법을 설해 청케하면 설경자(說經者)의 복덕성이 한량없는 것이니라.

◇ 화 잘 내는 사람

여러 사람이 방안에 모여 어떤 사람의 덕망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사람의 행동은 모두 훌륭한데 두 가지 단점이 있다. 곧잘 성내지 않으면 경솔한 게 그의 흠이다.” 하고 누가 말했다.

이때 그 사람이 문 밖을 지나다가 그 말을 들었다. 그는 화를 내며 방으로 뛰어들어와 그렇게 말한 사람의 목살을 잡고 주먹질을 해댔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내가 언제 성을 내고 매사에 경솔하단 말이오. 이 사람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니까 때린 것 아니오!” 한 사람이 그의 말을 받아

“지금 당신이 한 것이 바로 성을 잘 내고 경솔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소?” 하고 반문했다. 남이 자기 허물을 말할 때 원망하거나 성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비유하면 이렇다.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술에 취해 성격이 거칠어지고 정신이 흐려져 있다가도 남에게 비난을 듣게 되면 도리어 그를 원망하고 미워한다.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다는 것을 내세우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자기 허물 듣기를 꺼리며, 남에게 비난을 들으면 화를 낸다. (百喻經 백유경)

◇ 자비와 인욕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거든 분수대로 나누어 주라. 한몫처럼 두루 가

없이 여기면 이것이 참 보시이며, 나와 남이 둘 아닌 것이 한몸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살림살이 아닌가. 누가 와서 해롭게 하더라도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한 생각 성내는 데에 온갖 장애가 벌어진다. 번뇌가 비록 한량없다 하지만 성내는 것이 그보다 더하다. 열반경에 이르기를 “창과 칼로 찌르거나 한수와 악을 발라 주더라도 두 가지에 다 무심하라.”고 하였다. 수행자가 성내는 것은 흰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는 것과 같다. 참을성이 없다면 보살의 행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닦아 가는 길이 한량없지만 자비와 인욕이 근본이 된다. 참는 마음이 꼭두각사의 꿈이라면 욕보는 현실은 거북의 털과 같다. (西山 禪家龜鑑 서산 선가귀감)

◇ 열 가지 중한 계(十重大戒)

“첫째, 중생을 죽이지 말라. 온갖 목숨 있는 것을 내가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수단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 죽여서는 안 된다. 즉, 죽이는 인(因)과 죽이는 연(緣)과 죽이는 방법과 죽이는 업(業)으로 목숨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 보살은 항상 자비스런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방자한 생각과 통쾌한 마음으로 산 것을 죽인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둘째,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주인이 있는 물건이든 도둑들이 훔친 것이든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라도 제

가 훔치거나 남을 시켜 훔치거나 수단을 써서 훔쳐서는 안 된다. 보살은 항상 자비스런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도와 복되고 즐겁게 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그것은 큰 죄가 된다.

셋째, 음행하지 말라. 내가 음행하거나 남을 시켜 음행 하게 하지 말며, 몸의 어느 부분에도든지 음란한 짓은 하지 말라. 보살은 항상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청정한 법을 일러주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음란한 마음을 내어 가까운 친척도 가리지 않

고 음행을 하여 자비한 마음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넷째,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거짓말하거나 남을 시켜 거짓말하게 하거나 수단을 써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보살은 항상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견해를 갖게 해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중생에게 옳지 못한 말과 옳지 못한 소견과 옳지 못한 업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다섯째, 술을 팔지 말라. 내가 술을 팔거나 남을 시켜 팔아서도 안 된다. 술은 허물을 짓는 인연이 된다. 보살은 항상 모든 중생에게 밝고 빛나는 지혜를 내게 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뒤바뀐 마음을 내게 한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여섯째, 사부대중(四部大衆)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출가한 보살과 집에

있는 보살과 비구와 비구니의 허물을 제 입으로 말하거나 남을 시켜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보살은 만약 나쁜 사람들이 바른 법에 대해서 법이 아니고 율(律)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자비스런 마음으로 그들을 교화하여 대승(大乘)에 대한 신심을 내게 해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자신이 바른 법에 대한 허물을 말한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일곱째,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자기를 칭찬케

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게 해서는 안 된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대신해서 남의 비방과 욕을 달게 받으며, 나쁜 일은 제게 돌리고 좋은 일은 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자기 공덕을 드러내고 남의 잘한 일을 숨겨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게 한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여덟째, 제 것을 아끼려고 남에게 욕하지 말라. 내가 아끼거나 남에게 제 것을 아끼게 해서는 안 된다. 보살은 가난한 사람이 와서 달라 하면 무엇이든지 주어야 한다. 보살이 나쁜 마음과 성냄 마음으로 돈 한 톨, 바늘 한 개라도 주지 않고, 법을 구하는 사람에게 법문 한 구절, 계승 한마디라도 일러주지 않으며, 도리어 나쁜 말로 욕한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아홉째, 성내지 말고 참회를 잘 받아

라. 내가 성내거나 남을 성내게 해서는 안 된다. 보살은 끝없는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화평하게 하며 자비한 마음과 공손한 마음을 내게 해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나쁜 욕지거리를 하여 주먹이나 작대기나 칼로 치고도 화가 풀리지 않아, 그 사람이 진심으로 참회하여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열째,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내가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비방케 해서는 안 된다. 보살은 이교도나 나쁜 사람들로부터 삼보를 비방하는 한마디의 말이라도 들으면 삼백 자루의 창으로 가슴을 찔린 듯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제 입으로 비방할 것인가. 신심과 공손한 마음을 내야 할 텐데 도리어 잘못된 소견을 가진 자들과 어울려 삼보를 비방한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어진 불자들, 이것이 보살의 열 가지 프라티목샤(戒本)이다. 마땅히 배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것을 범하면 이 몸으로 보리심을 내지 못하며, 온갖 공덕을 다 잃어버리고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보살은 지금 배우고 장차도 배울 것이며 이미 배운 것이니, 이 열 가지 계를 잘 배워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 지키라.” (梵網經 범망경)

◇ 본원 청정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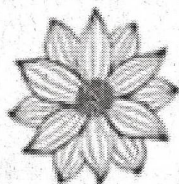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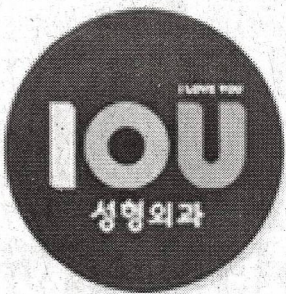
이 법은 곧 마음이므로 마음 밖에 없으며, 이 마음은 곧 법이므로 법 밖에 마음이 없다. 마음은 스스로 무심하여 다시 무심한 것도 없으니, 만약 마음으로 무심코자 한다면 도리어 유

심(有心)이 될 것이다.

이 도리는 모든 생각과 헤아림이 끊어졌으므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며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이 마음이 본래 청정한 부처이므로 사람마다 다 있는 것이다. 고물거리는 미물 중생으로부터 불보살에 이르기까지 본래 한 몸이요 다를 것이 없는데, 망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가지가지로 업을 짓고 과보를 받게 된다. 비록 업을 짓고 과보를 받으나 본불(本佛)밖에 한 물건도 없으니, 텅 비어 일체에 통하며 또 고요하여 밝고 미묘하고 안락할 뿐이다.

스스로 깊이 깨달아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이니 다시 더 한 물건이라도 보는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래께서는 ‘내가 무상정각(無上正覺)에서 실로 얻은 것이 없으니 만약 얻은 것이 있었다면 연등불께서 내게 수기(授記)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며 이것을 이름하여 무상 정각이라 한다’ 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보면 이 본원청정심(本源淸淨心)*이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두루 평등하여 너와 내가 없이 항상 스스로 밝아 널리 비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마에 구슬이 박힌 힌센 장사가 자기에겐 구슬이 박힌 것을 모르고 밖으로만 찾아 두루 다녀도 얻지 못하다가, 지혜 있는 사람이 이마에 구슬이 박힌 것을 가르쳐 주면 당장에 구슬을 찾는다. 수행인이 자기 본심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밖을 향해 찾다니면서 갖가지 공을 닦아 점차로 깨닫고자 하지만, 만 겹을 지내어도 영영 도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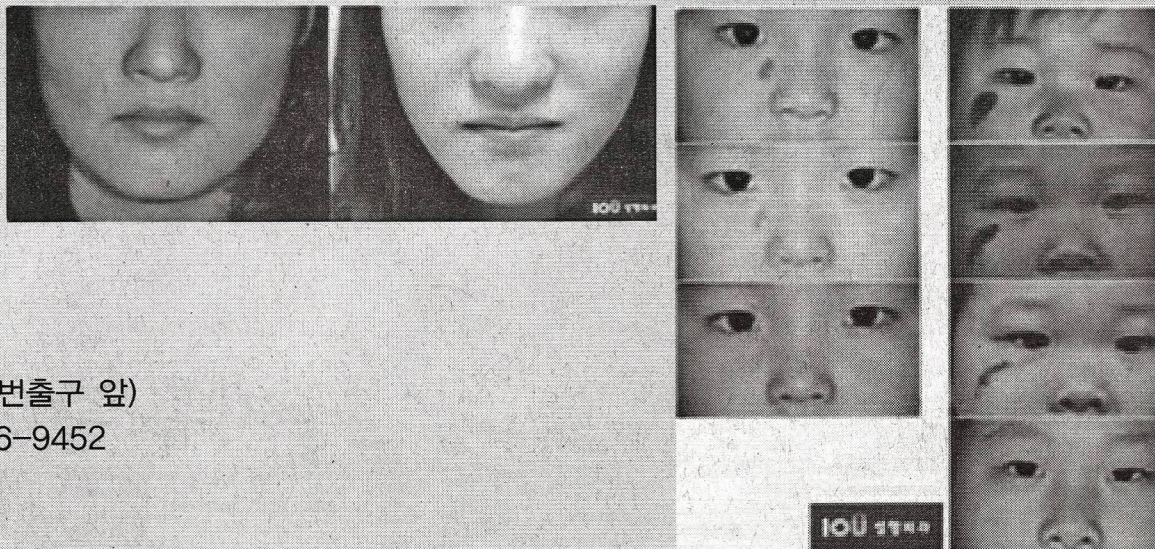
36.5℃의 따뜻한 감성으로 다가가는 IOU 성형외과입니다.

| LOVE YOU 성형외과 | LOVE YOU 성형외과 | LOVE YOU 성형외과 | LOVE YOU 성형외과 | LOVE YOU 성형외과 | LOVE YOU 성형외과 | LOVE YOU 성형외과



강 철 욱
원장/성형외과 전문의

135-887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3-4 만년빌딩 2층(신사역 8번출구 앞)
Tel 02.549-0365 Fax 02.549-0364 Mobile 010-4046-9452
www.iou4u.com E-mail. kcu36.5@daum.net



신행체험

“인욕, 하심 가슴에 와 닿아”

이숙현
(단음사)

- 오늘은 무
엇을 하셨어요.
포도를 꺾
어요. 집에서
각자님과 같
이 포도농사
를 짓고 있어
요. 한창 수
확 때가 되면
무척이나 바
쁩니다. 올해
는 햇별이 좋
아 포도가 달고 잘 익었어요.

- 포도재배에 달인이겠어요.
고향이 영전이고 지금도 살고 있
어요. 어렸을 때부터 포도를 보고 자랐어
요. 결혼 후에도 계속 재배했으니 달인
하셔도 되나? 저 보다는 각자님이 달
인이예요. 다른 농사도 그렇듯 1년 정
성스레 가꾸었는데 큰비가 와서 포도
열매가 쓸어 질 때는 마음도 안타깝지
요.

- 농사지으면서 불공하기는 쉽지 않지요
일어나는 시간은 보통 새벽 5시입니
다. 한창 일 할 때는 염속 30분하지요

항상 참고 참회하면서 생활할 터

기본적인 불교교리를 책으로

어렵지요. 농한기 때에는 새벽에도 시
간을 두고 염송하지만 요즘(수확기)
은 바쁩니다. 저녁에 9시부터 불공을
드리고 있어요. 월초불공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새해불공은 여유 있으므로 항상
절에 나갑니다.

- 총지종과 인연은
단음사 다닌 지 15년 됐어요. 우리
뒷집에 계시는 보살님이 단음사에 다
녀 절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불교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가까운 경
주 불국사도 관광차원에서 갔다 온 적
은 있었지요. 그만큼 종교를 몰랐습니
다.

- 종교를 몰랐었는데 그런데 ---
집안 어른신과의 마찰, 각자님 하는
일도 잘 안되었어요. 가정이 불안하
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니다. 안정이 필
요했으며, 종교에 의지하고 싶었어요.

- 불교에 대한 첫인상
부처님을 몰랐으므로 불상이 있고
없고도 몰랐습니니다. 무조건 “옴마니 반

메홀”만 따라 하고 염주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요. 처음에는 왜 하는지 몰랐고 교도들
이 하니까 따라했어요. 몇 년을 하다보
니까 사는 것의 의미, 참회를 해야 된
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 평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에 어떻게
반영하십니까?

저는 실천 서원 할 때 인욕과 하심으
로 하는 말씀이 항상 마음에 와 닿아
요. 어떠한 일이건 참고 참회하면서 생
활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 바람

3남매를 두었어요. 대구와 영천에서
살고 있어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
고, 가족이 화목하고 포도작물이 잘 되
었으면 합니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
고 옴마니반메홀 불공을 열심히 해야
겠지요. 하하하.

- 총지종에 건의사항은

총전과 종조설법집과 위드 다르마,
종보등을 보고 있어요. 총전은 종합적
입니다. 체계적으로 불교 강좌를 서울
이나 부산에서는 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곳은 대도시
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알기 쉽고 기본
적인 불교교리를 책으로 만들어서 받
았으면 합니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댁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하고 포도농사 잘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보살님께서는 총지종과 인연 맺을
때 각자님의 사염어려움과 시어머님과
의 마찰이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인욕
하고 참회하여, 시어머님과 각자님을
총지종에 교화시킨 후 시어머니는 열
심히 서원당에 나오셨다고 한다.

그 뒤로 집안이 안정되어 갔으며 평
안과 화목을 가져 다 주어, 보살님은
더욱 기도를 하셨다고 한다. 지금도 보
살님께서는 절일이라면 술선수범하여
자신의 일처럼 묵묵히 하신다고 한다.
며느리들도 절에 교화시켰으며, 밭에서
포도농사를 할 때 10시가 되면 잠깐이
라도 ‘옴마니반메홀’ 염송을 하신다고
한다.

- 박종환 기자

불교설화 <38>

화주시주상봉(化主施主相逢)

- 산청 심원사

경상남도 산청군(山淸郡)에 심원사(深遠寺)라
는 절이 있었다. 심원사는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비가 오면 빗물이 법당 안으로 새어 들어와서 주
지인 지경(志經)스님은 이 절을 중수 하고자 원
(願)을 세워 백일 기도를 하였다. 기도 회향 날
꿈에 부처님께서

“네가 내일 동구밖에서 맨 처음 만나는 사람에
게 시주(施主)를 청하라.”하셨다.

이튿날 아침 지경스님은 아침 예불을 하고는
권선문을 들고 설레는 마음을 달래며 동구 밖
에서 서성거렸다. 그런데, 맨 처음 나타난 사람은
윗 마을 조부자 집에 사는 머슴
삼돌이가 아닌가?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저 머
슴이 무슨 돈이 있다고 시주를
부탁 하란 말인가?”

그만 맥이 탁 풀린 스님은 땅
에 털석 주저앉아 버렸다. 이 모
습을 본 머슴이 다가와

“스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하며 부축을 해 일으켰다.

스님은 몇 번을 망서리다가 그
래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
르며 절을 중수하고자 하니 시
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뜻밖에도 머슴은

“절을 중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 장
가 가려고 모아 온 품삷을 드릴
테니 스님 보태어 절을 중수하십
시오.”

그러면서 기꺼이 권선문에 백
냥이라고 써 달라는게 아닌가?

“아니 당신에게 어떻게 이처럼
큰 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스님, 저는 조부자 집에서
삼십여 년간을 머슴으로 살았
으면서 장가가려고 한 푼도 안쓰고

모았습니니다만, 장가가는 것보다 더 뜻있는 일에
써야지요.”

“고맙습니다. 부디 소원성취 하십시오.”

지경스님은 머슴 삼돌이의 마음에 감탄을 하며
몇 번이고 인사를 하였다.

며칠 후 머슴은 돈 백냥을 가지고 심원사로 왔
다. 머슴이 법당 안에 들어서자 언제나 근엄한
모습의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고 계셨다.

“부처님! 저는 못 배운게 한이올시다. 이렇게
남의 머슴으로 평생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부처
님! 다음 생에는 부디 저도 배워서 남의 머슴 신
세만은 면하게 해주세요.”하며 머슴은 부처님
전에 절을 하였다.

머슴 삼돌이가 평생을 모아 온 빼이폰 그 돈을
시주한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모두 다 미
쳤다고 수근거리며 지경스님이 꼬여서 돈을 뜯어
냈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녔다.

모두들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 절을 중수하는
일은 착오없이 진행이 되어 마침내 심원사는 비
가 와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훌륭하게 중
수되었다. 허나 모든 재산을 다 바친 머슴은 이
제 돈이 없어 장가도 갈 수가 없었다.

절이 중수되어 한 해가 지나갈 무렵 그 머슴은
중풍이 들어 앓다가 앓은뱅이가 되어 버렸다. 머
슴은 조부자 집에 살 수도 없었다. 사람들 등에
업혀 절에 들어오게 된 머슴을 스님은 정성껏 간
호를 하였다. 시주한 공덕이 있으니 꼭 나오리라
믿으면서 머슴을 위해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그

노오란 창포난을 보아도, 안개비가 소리없이 내
리는 것을 보아도, 심원사를 생각하며 그 옛날을
그리워 했다.

‘지금쯤 심원사는 완전히 폐허가 되지나 않았
는지? 지금쯤 심원사 법당 앞뜰에는 창포난이 만
발하겠지. 지금쯤은 누군가가 들어와 도끼를 빼
고 부처님 시봉을 하고 있겠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어느 날은 심원사 부
처님을 뵈옵고 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절을 찾아갔
다. 그런데 그날, 산청군에 새로 부임한 박영제
(朴永濟)라는 원님이 심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
고는

“그렇리가 있느냐. 내가 가서
한 번 빼보리라.” 하며 이방과
몇 명 권속들을 데리고 절을 찾
아왔다.

원님이 심원사에 오신다는 소
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절로 모
여들었다. 원님께서 심원사에 와
서 보니 과연 들던 이야기대로
부처님의 이마에는 도끼가 박혀
있었다.

“참 괴이한 일이로구나.” 하며
손으로 부처님 이마의 도끼를 잡
으니 쑥 빠지는데 ‘화주시주상봉
(化主施主相逢)’이란 쓴 글자가
도끼날에 써여 있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원님은
활연대오(豁然大悟)하였다. 그때
야 원님은 전생의 자기를 볼 수
가 있었다. 도끼를 뽑는 순간 구
경꾼들 속에 있던 지경스님은 원
님 앞에 나아가 절을 하니 원님
은 스님의 손을 잡으며

“스님! 나는 전생에 스님의 덕
택으로 시주한 공덕이 있어 일자
무식으로써 삼세에 받을 업보를
한 생으로 끝마치고 금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 이런 벼슬을 하게 되었구려.” 하며
스님과 함께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한없이 절을 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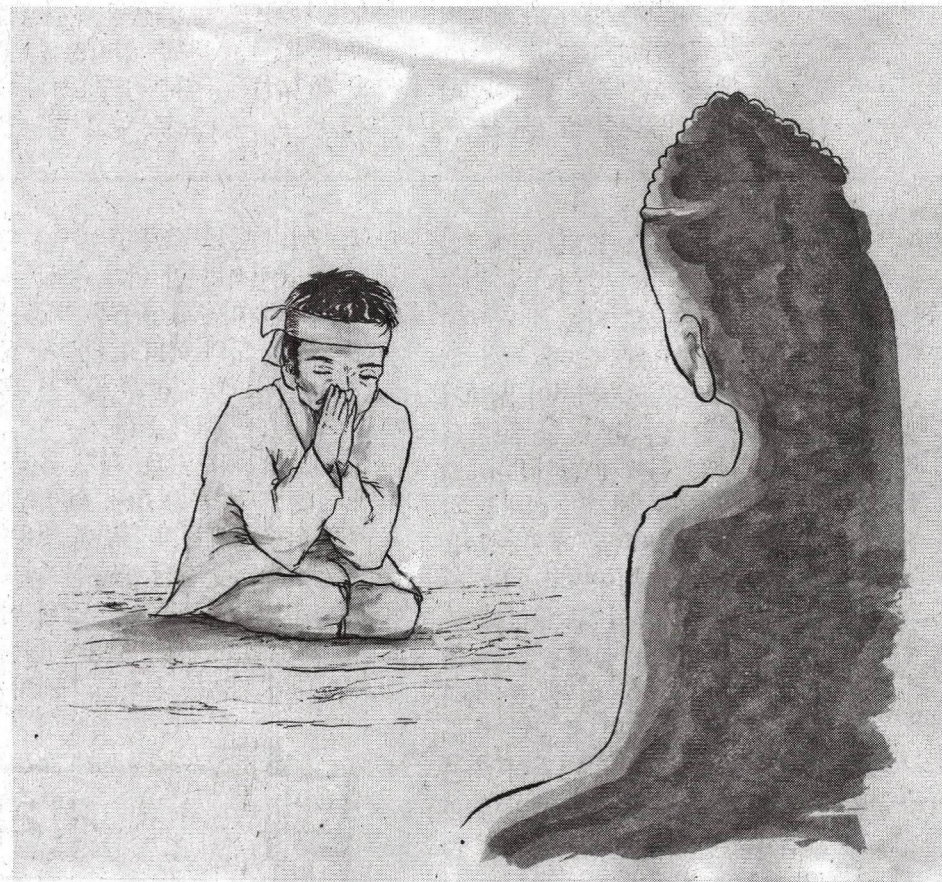
얼마 후 부처님을 쳐다보니 도끼가 빠져 이마
에 난 상처는 깨끗이 없어지고 이마에서는 백호
광명이 빛났다. 이것을 본 원님은

“스님!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이곳
에서 공부합시다.” 하며 스님을 붙잡았다. 구경하
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이제부터는 부처님을
정성껏 섬기기를 다짐하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천심으로 시주한 공력으로 한 생을 머슴살이
로, 한 생을 앓은뱅이로, 한 생을 눈 먼 장님으로
이렇게 삼생(三生)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악업
의 업보를 한 생으로 끝마쳤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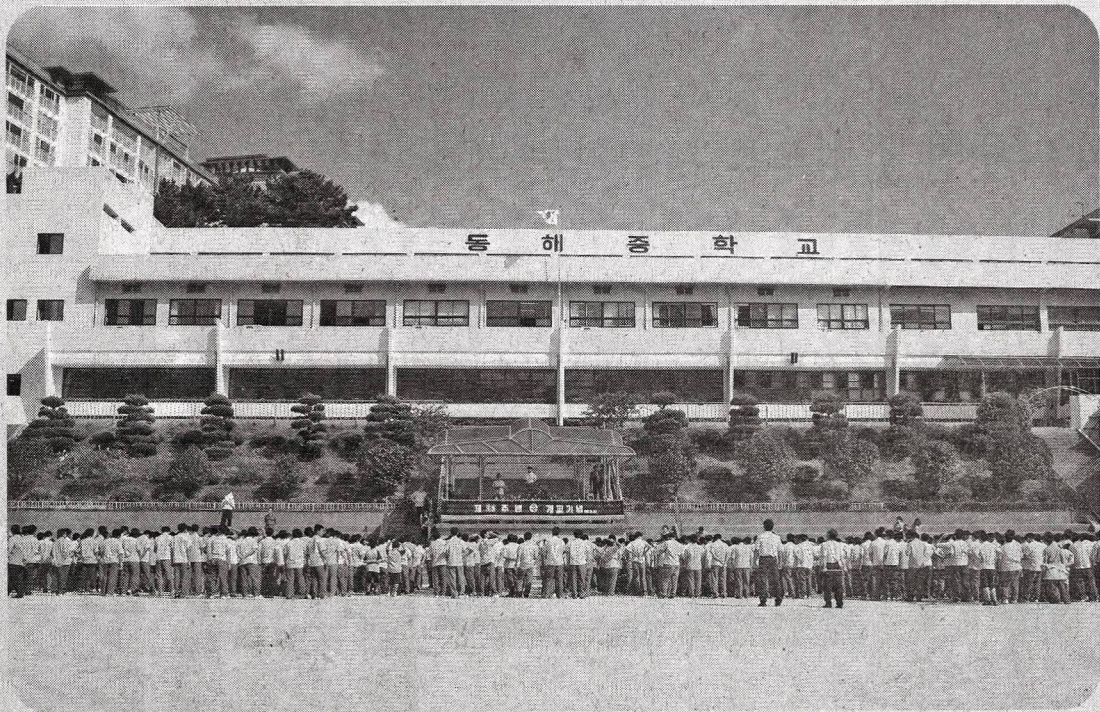
*화주(化主): 보시하도록 인도한 사람
시주:(施主): 보시를 한 사람

-심일화



삽화 : 정윤지

꿈과 희망을 품고 실천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 교훈 : 창조 · 협동 · 경애
- 교목 : 보리수
- 교화 : 장 미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수행의 길에서

추석 명절 보내기

자 인 행 부산 정각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듣기만 해도 마음이 풍족해 지는 명절 추석, 팔월 한가위는 전통농경사회에서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일 년 중 가장 풍성한 시기이다.

오늘날에도 설날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로서 추석은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풍요롭고 한가함을 주며 아울러 오랜만에 친지와 친척 그리고 가족들이 차례를 지내고 난 후 웅기충기 모여앉아 차례 음식에 흰 쌀밥으로 식사를 마친 후, 간식으로 햇과일을 먹으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은 나에게나 혹은 우리 보살님들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일 것이다. 또한 지붕위로 동그랗게 뜬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어른들의 말 속에 달을 보며 소원을 빌던 행복한 추억 정도는 어린 시절 기억 저 편에 누구나 한 움큼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추석 명절이 누구에게나 행복한 것은 아니다. 특히 각 가정 집안의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하

는 주부입장에서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사회적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힘들고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통 평범한 집안의 여성들은 가족들을 위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차례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명절 바로 전날이 되면 하루 종일 조그리고 앉아서 전을 부치고 산적교정이를

계속 반복해야 한다.

나도 승직자 이전에 한 집안의 며느리다. 위에서 나열한 일반 여성들의 명절날 일과와 발반 차이 없는 명절을 보낸다. 이때 남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명절날 남자들은 여자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만드는 동안 거

의 현실을 보여준다.

민족의 명절은 어느새 남성들에게는 휴가요, 여자들에게는 노동으로 자리 잡힌 것이다. 거기다 양가 집안까지 다녀오는 경우엔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여성에게는 더욱 피곤한 명절보내기가 된다.

추석명절은 원래 여성의 축제이다. 삼국시대에는 길쌈대회를 하고 마을에서 술과 떡을 내고 여성들이 하루 신나게 지내는 축제였지만, 어쩌다 오늘날 추석 명절은 여성들이 조상을 위해 허리 굽혀 일만하는 제삿날이 되어버렸을까 안타깝다.

추석 연휴는 끝났다. 그러저럭 시대에 가서 음식준비도 하고 차례도 지내고, 친정도 다녀왔다. 며느리 노릇, 딸 노릇 대충대충은 한 것 같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바로 월초볼 공이다. 설법준비도 해야 되고 재봉투도 정리해야하고, 추석연휴에 바로 이어 월초볼공 참 힘들다. 선배 전수님들은 며느리 노릇, 딸 노릇 어떻게 했을까? 누가 한 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가사노동 - 명절증후군

“선배 전수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까우고 송편을 만들고 게다가 각기 다른 가족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장만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다.

어디 그뿐인가. 아침에 차례를 치르고 나면 아침상을 내와야 하고 밥을 다 먹으면 치워야 하고 다시 간식거리를 내놓고 그러다보면 또 점심시간이고 저녁시간이 된다. 여자들은 밤이고 낮이고 상을 차렸다가 치우기 그리고 치운 그릇들의 설거지를

실에서 술상을 앞에 두고 술판을 벌리거나 아니면 화투를 친다.

이는 우리나라 남성의 23%만이 명절에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자를 돕고 나머지 대다수는 남자들끼리 화투를 치거나 술을 마시면서 안방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어느 여성잡지의 리서치 통계가 오늘날 명절증후군이라는 사회적 신조어까지 발생하게 한 명절 때에 여성이 겪어야하는 무거운 가사노동

수리들의 이야기

가을에 아름다운 것들 ...

가을엔 너른 들판을 가로 질러 노을지는 곳으로
어둠이 오기 전까지
천천히 걸어 보리라
아무도 오지 않는 그늘진 구석 벤치에
어둠이 오고
가로등이 켜지면
그리움과 서러움이
노랑게 밀려 오기도 하고
단풍이 산기슭을 물들이면
불어간 가슴은 쿵쿵 소리를 내며
고독 같은 설렘이 번지겠지
아~ 가을이여!
낙엽이 쏟아지고
철새가 떠나며
슬픈 허전함이 가득한 계절일지라도

네게서 묻어오는 느낌은
온통 아름다운 것들 뿐이네.....

-정유찬

가을 하늘을 보며

하얀 구름이 떠다니는 파아란 하늘에
누군가를 향해 마음의 편지를 쓰고..
조각배에 편지 실어서...
하늘 바다에 띄워 보고픈 가을하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보살님들 마음속에
사랑과 행복이 주렁주렁 열매맺는
풍요로운 ... 결실의 수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경은

생활상식

이번에는 의류나 가정용품의 수납 아이디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스웨터, 운동복 등의 보관

부피가 큰 스웨터나 운동복 등을 서랍이나 수납함에 넣을 때는 동글게 말아 보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말은 의류를 고무 줄로 2 군데 정도 고정해 두면 수납함 안에서 펼쳐지지도 않고 수납 양도 많아진다.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는 담배 갑을 사용

상자 모양의 담배 갑과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의 크기는 같다. 빈 담배 갑 몇 개를 양면 테이프로 연결하여 붙이면 칸막이가 있는 테이프 수납 케이스가 완성 된다.

맥주 상자를 잡지 꽃이로 활용



불교상식 8

문고본 도서는 신발 상자에 넣어 벽장에 수납

문고본 도서들을 벽장에 보관할 때는 뚜껑이 있는 구두 상자를 활용한다. 책의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상자 한 개에 약 20 권 정도의 문고본이 들어간다.

싱크대 밑의 주방도구를 서류 케이스에 수납

싱크대 밑에 흔히 쌓아 두는 프라이팬이나 냄비 뚜껑은 플라스틱 서류 케이스를 사용하여 세워 수납한다. 넣고 꺼내기가 간편하고 싱크대 밑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훈민정음과 불교

훈민정음(訓民正音) 서문은 한글로 된 것이 '108'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랏말싸미...]로 시작된 것이 108자가 됩니다.

[국지어음(國之語音)...]으로 시작되는 한자로 된 서문은 54자입니다. 108의 절반인 셈이죠. 108은 불교와 관련이 깊은 숫자인데 백팔염주, 백팔번뇌, 등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훈민정음을 창제에 불교사상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가 유교였던 조선시대에 훈민정

음을 만들고,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비롯해 불경언해(佛經言解)를 펴냈다는 사실은 훈민정음을 만들 때 불교사상을 불어 넣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 나라에 한문을 전파시키는 데에 절대적인 공을 세운 것이 불교였던 것처럼 훈민정음의 보급도 불교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세종대왕의 불교정책이었던 것이죠.

-윤우재 기자

이달의 추천도서

사는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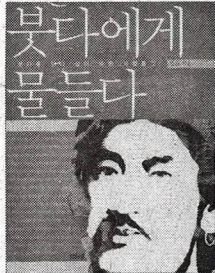
보경지음/ 들



승보사찰 송광사 저술원인 법현사 주지, 보경스님의 산문집. 저자가 그동안 대중매체에 기고한 글과 신도들을 상대로 했던 법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써온 글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본문은 '일하는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 '사람을 얻는 즐거움' 등 인생의 즐거움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이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다. 매사 부정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마음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저자의 글을 읽다 보면 평상의 도를 깨달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붓다에게 묻는다



야기를 다룬 두 번째 책이다. 법륜스님은 이번 책에서도 특유의 위트와 구수한 입담, 정곡을 찌르는 어법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물들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처럼 생생하게 들려준다. 2,500여 년 전 전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통째로 물들여버리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이 책 속에서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다.

허공 속의 무영탑

일진행 지음/ 운주사



『노보살 일진행의 행복한 고행』에 출간된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간간히 써 놓은 시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쓴 시들이기에 현란한 기교나 수사는 없을지라도, 각각의 시어 속에는 칠순 노보살의 신행에 대한 치열함과 부처님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왕초보 법화경 박사 되다

정승석 지음/ 민족사

민족사 왕초보 시리즈 법화경 편. 법화경은 불교의 많은 경전들 중에서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내용은 대승불교에서 표방하는 신앙과 실천도를



있도록 안내한다.

부처님의 대기설법을 구현한 최고의 담가 '우학스님'의 불교 입문서. 기초교리에서 인생상담까지 부처 되는 모든 공부를 다루었다.

부처님은 제자가 들고 오는 질문을 상대의 수준에 맞게 알아듣기 쉽게 풀어 설명해주셨다. 이렇게 상대의 눈높이에 따라 설명하는 문답법을 대기설법 혹은 수기설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말씀이 있다. 이 책은 어린 학생에서 나이든 보살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인생에 대한 2백여 가지 궁금증에 대해 호쾌한 답을 제시한다. 스님의 설법을 듣다 보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불교가 한층 더 가까워지고, 가슴을 짓누르는 인생 고민도 단박에 내려놓을 수 있다.



금산인삼

동원시장점 가-42호 02. 499-9006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사장 김경임 (벽룡사교도)
010-9960-8778

인삼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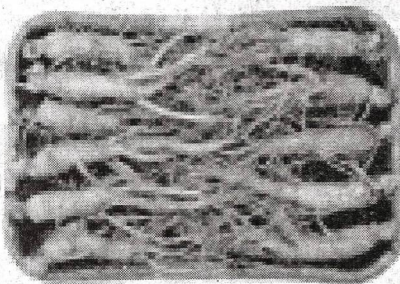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103-24 동원시장내 가-42호

‘영산재’ 세계무형문화유산 문화재청, 강강술래도 유네스코에 등재



▲영산재(중요무형문화제 제50호)

문화재청(청장 이진무)은 “9월 3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무형문화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처용무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재된 5종목의 무형문화유산은 △인류 문화 다양성의 원천확인 △인류의 창의성 기여 △해당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존지원 정책실시 등을 등재기준으로 유네스코의 세계무형문화유산결정에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등재된 한국의 무형문화재는 보호를 위한 국제적 재정 및 기술 등 유네스코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처용무란 처용 가면을 쓰고 추는 춤을 말한다. 궁중무용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형상의 가면

을 쓰고 추는 춤이며, 통일신라 헌강왕(재위 875~886) 때 살던 처용이 아내를 범하려던 역신(疫神, 전염병을 옮기는 신) 앞에서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춰서 귀신을 물리쳤다는 설화가 있다. 강강술래는 노래와 춤이 하나로 어우러진 부녀자들의 집단놀이로 주로 전라남도 해안지방에서 추석을 전후하여 달밤에 행해진 세시놀이로 잘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해당 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는 한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범사회적 인식과 이해 도모 및 폭넓은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임에도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산을 조사 연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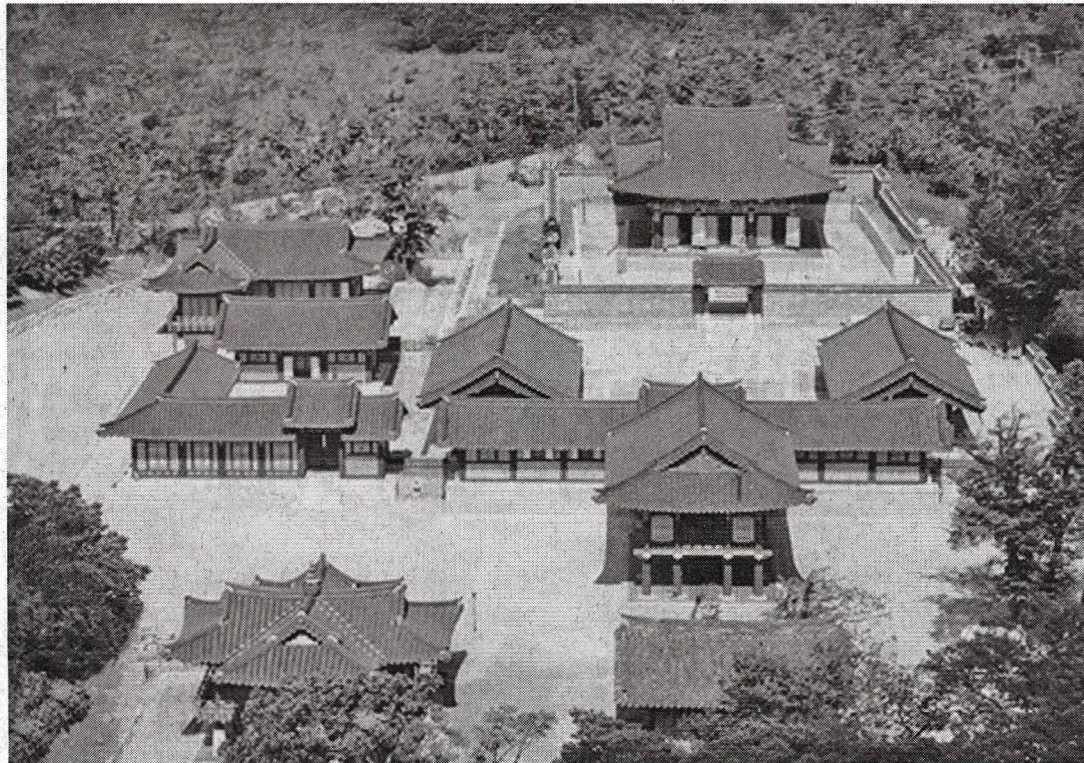
라는 앞서 등재된 3종목 세계무형문화유산(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등과 함께 8종목을 보유하게 됐다.

영산재

영산재는 49세(사람이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의 한 형태로, 영혼이 불교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하는 의식이다. 석가가 영취산에서 행한 설법회상인 영산회상을 오늘날에 재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교 천도예례 중 대표적인 제사로 일명 ‘영산작법’이라고도 한다. 영산재는 제단이 만들어지는 곳을 상징화하기 위해 야외에 영산회상도를 내다 거는 것으로 시작한다. 신앙의 대상을 절 밖에서 모셔오는 행렬의식을 하는데, 이때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 해금, 북, 장구, 거문고 등의 각종 악기가 연주되고, 바라춤·나비춤·법고춤 등을 춘다. 신앙의 대상을 옮긴 후에는 여러 가지 예를 갖추어 소망을 기원하며 영혼에게 제사를 지낸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대상을 돌려보내는 봉송의례를 하는데 제단이 세워진 곳에서 모든 대중이 열을 지어 돌면서 독경 등을 행한다.

낙산사, 옛 모습 되찾았다

4년간의 1,2차 복원불사 천년고찰 회향식



▲새로 복원된 양양 낙산사의 모습

2005년 화마에 의해 소실됐던 낙산사(주지 정념)가 4년간의 1,2차 복원불사를 통해 천년고찰의 위용을 되찾았다. 낙산사 주지 정념스님은 9월 29일 복원불사 회향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10월 12일 오전 11시 낙산사 원통보전에서 ‘낙

산사 2차 복원불사 회향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낙산사는 2005년 화재 2007년 11월까지 전개된 1차 복원불사를 통해 원통보전·홍련암·범종각·홍예문·낙산유치원 등 12개 전각과 시설을 복원했다. 이어 추진된 2차 복

원불사를 통해 낙산사는 설선당·응향각·무산지역아동센터 등 12개 전각과 시설을 추가로 건립했다.

정념스님은 “종단 큰 스님들과 불자들의 원력,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정성으로 천년 고찰 낙산사가 옛 모습을

복원하게 됐다”며 “4년간 이어진 복원불사에 묵묵히 동참해준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복원불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2년여에 걸친 발굴조사로 시작되었으며, 원통보전(圓通寶殿)은 조선초기의 모습을 재현했고, 다른 전각들은 18세기 김홍도가 그린 ‘낙산사도(洛山寺圖)’를 바탕으로 복원을 했다. 160여억원이 들어간 불사의 화재대책은 원통보전 등 주요 건물에는 수막시설을 갖추었고 사찰 곳곳에 10여대의 방수총을 설치했다. 또 건물마다 방화사 및 방화수, 소화기를 설치하고, 건물 주위에는 화재에 강한 나무들을 식수했다.

낙산사는 이번 복원불사 회향식을 봉행한 후 2012년까지 3차 복원불사를 전개한다. 1·2차 복원불사가 낙산사 옛 모습을 찾는 불사였다면, 3차 불사는 불자와 국민들에게 보나오는 수행공간을 위하여 ‘템플스테이 연수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불교전문서점 개설

조계사 앞 템플스테이정보센터 내

불교전문서점이 10월 15일 조계사 맞은편에 위치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 문을 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스님)은 5일 “불교전문 서적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전문서점을 개점키로 했다”고 알렸다.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지하 330여㎡ 규모에 마련되는 서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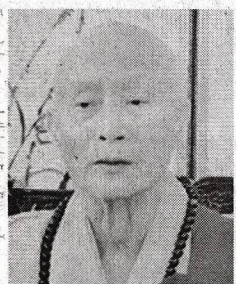
불교관련 고서와 장서를 비롯해 6000여 종의 서적, 3만여 권을 비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적은 수행과 학술, 불교예술, 요가 및 다도, 소설·수필류로 구분해 비치되며, 특히 어린이 관련 서적을 주요하게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계 출판업체와 불자들은 “늦었지만, 매우 잘

된 일”로 평가하고 있다. 불교출판협회 회장 지홍스님은 “조계사가 명실공히 한국불교의 중심도량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전문 서점 한곳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으나, 문서포교와 학문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으면 협회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태고종 인공스님, 총무원장에 선출

취임식 10월 28일 봉선사



▲인공스님

를 개최하고 전 중앙총회의장 인공스님을 제24대 총무원장으로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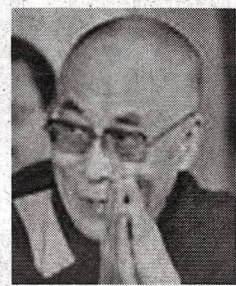
선거인단은 재적의원 50명 가운데 48명이 참석해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의 총무원장 선출은 전 중앙총회의장 인공스님이 25표를 얻어 전 원로의원 지허스님(16표)과 전 중앙총회 부의장 대은스님(7표) 등을 누르고 당선됐다. 도산스님(전 보우승가회장)은 투표 직전 후보직을 사퇴했다.

인공스님은 당선소감을 “이번 원장 선거를 위해 총회가 세 차례 열리는 등 불협화음 생긴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에게 송구스럽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위상이 많이 떨어진 종단의 초석을 다시 다진다는 각오로써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지난 1957년 10월 백해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한 후 봉원사 강원과 경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 후 태고종 총무원

달라이라마 “세계평화 위해 따뜻한 마음 길러야”



▲달라이라마

에 걸친 ‘평화 정상회의’를 개막하고 1천200여 청중에게 세계 평화의 증진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기를 것을 호소했다.

‘평화와 교육을 위한 달라이라마 센터’가 주최한 이 회의는 달라이라마의 2주간의 북미 방문에 맞춰 마련됐다.

달라이라마는 “미디어가 너무 자주 나쁜 일들을 선정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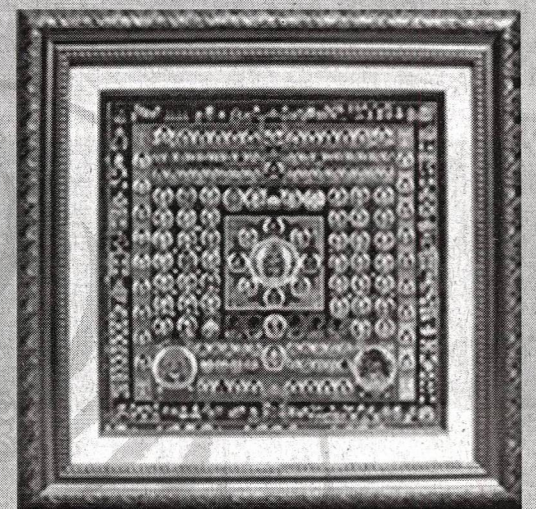
보도해 인류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생각을 퍼뜨리고 있다”며 언론은 세상에 폭력뿐만 아니라 자비와 보살핌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는 독일 출신 작가 에크하르트 톨레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와 교육, 자선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등을 다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남아공의 데스먼드 투투 명예 대주교는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전쟁, 빈곤, 폭력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우리는 선함과 사랑, 보살핌 같은 굉장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리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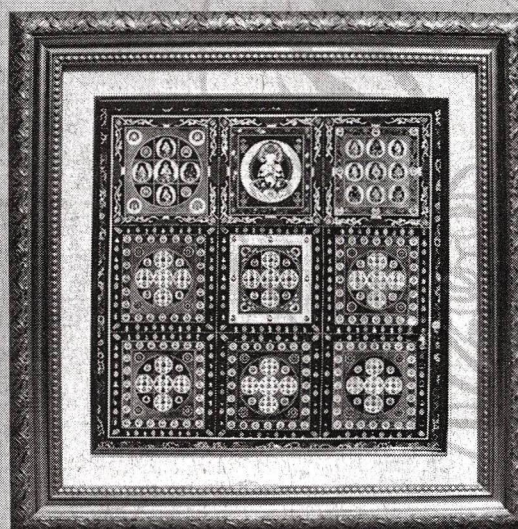
* 태상계 만다라 *

태상계 만다라는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대비야인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 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상계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엽연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계전, 신등 모두 414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금강계 만다라 *

금강계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만다라는 중앙의 생신의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계전, 연경천불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구성표

◆ 사이즈 및 가격 (태상계, 금강계 만다라가격동일)

- ▶ 1000 x 1000 1개 650,000원 (액자포함)
- ▶ 750 x 750 1개 500,000원 (액자포함)
- ▶ 500 x 500 1개 300,000원 (액자포함)
- ▶ 250 x 250 1개 200,000원 (액자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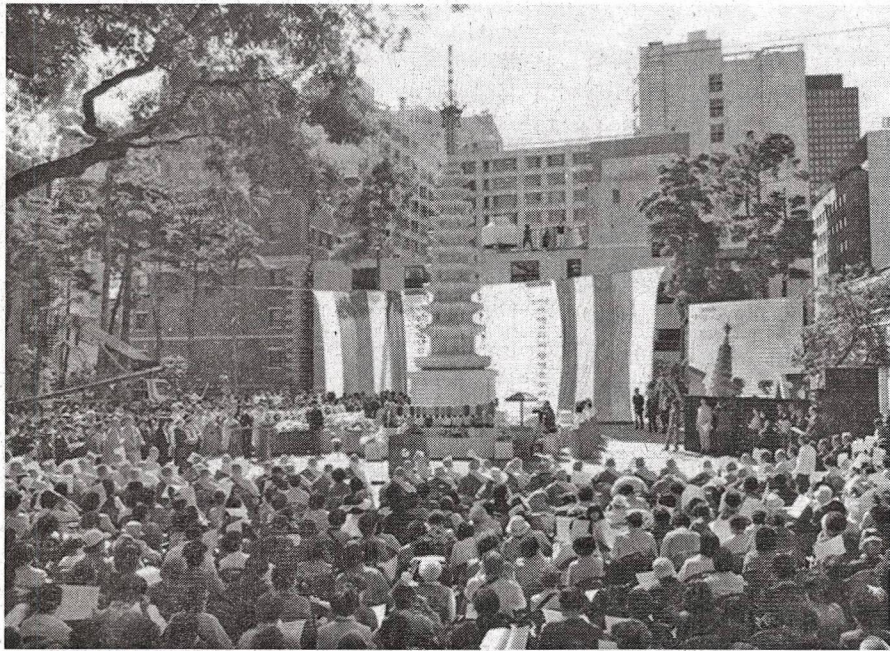
* 문의 : 통리원 T. 02-552-1080~3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80-047811 예)불교총지종

불교총지종



조계사 부처님 진신사리탑 제막

조계종 총본산 창건 100주년 기념



◇조계사 부처님 진신사리탑 제막식에는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서울 조계사 부처님 진신사리탑과 사적비가 새롭게 조성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관스님)은 10월 8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세존사리탑'과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사적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이번에 조성된 사리탑과 사적비는 오는 2010년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의 창건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총무원장 자관스님

의 발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제막식을 열기까지 1년 8개월이 걸렸으며 공사비만 18억여 원이 들어간 대작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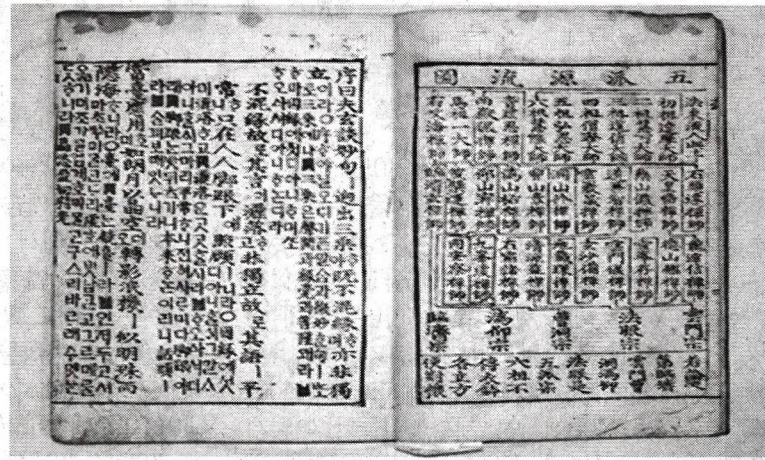
조계종 원로의원 지혜·밀운·원명·동춘·혜승·정무·혜정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전 중앙종회의장 자승스님, 포교원장 혜충스님, 조계사 주지 세민스님,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간인 팔정도(八正道)와 십선법(十善法)을 상징하는 8각10층으로 새롭게 거듭난 조계사 부처님 진신사리탑 내부에는 부처님 사리 1과를 비롯해 소형불상 14000분을 모셨고, 1660년(조선 현종1)은 진왕계사각판(법화경) 7권 1필과 25조가사 1벌을 함께 안치했다. 또 외부에는 8여래상, 8신중상 등을 부조로 장엄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중심이 될 사리탑으로서 위엄을 갖췄다.

이와 더불어 사리탑과 함께 이날 제막식을 가진 사적비는 조계사에 처음으로 조성된 것이다. 사적비에는 일본의 식민통치 일환인 한일불교 통합 정책에 대응해 진행된 한국불교 총본산 건립 운동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80여 년의 조계종단 근현대사를 아우른 조계사의 연혁을 정리한 내용이 담겨있다. 9000여 자에 달하는 비문은 총무원장 자관스님이 직접 작성했고, 귀부와 이수에는 고달사원종국사탑비를 바탕으로 중도와 조화의 미덕을 갖추도록 제작됐다.

'십현담요해' 언해본 첫 발견

해인사 "백련암" 서고에서 발견



◇해인사 백련암서 발견된 '십현담요해'

성철 스님이 주석했던 해인사 백련암 서고에서 설장 김시습 스님이 쓴 『십현담요해(十玄談要解)』를 한글로 옮긴 언해본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해인총림 해인사 백련암 감원 원택 스님은 지난날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해인사 백련암 장경각 서고에서 장서를 정리하던 중 『십현담요해』 언해본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설장 스님이 쓴 『십현담요해』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를 한글로 번역한 언해본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 입적 이후 스님이 즐겨보셨던 서적 5000여권이 소장돼 있는 장경각을 최근 정리하면서 우연히 『십현담요해』 언해본을 발견해 관련 학자들에게 문의를 한 결과 매우 희귀한 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견된 언해본은 조선 세조 때 각종 불경을 번역하던 기관인 간경도감이 폐지된 이후인 명종 3년(1548년) 강화 정수

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총 44페이지 분량이다. 특히 언해본에는 그 동안 학계에서 16세기 중엽 이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반치음(△)과 옛이음(○)이 사용되어 있어 국어사연구와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십현담』은 당나라 동안상찰(同安常察, ?~961) 선사가 저술한 10가지 계승이다. 특히 십현담은 선사의 일종으로 정위에 안주하는 것을 부정하고 생활 속의 실천을 강조하는 선학으로 모두 10편으로 구성됐다. 불교 사상적으로 볼 때 선적인 측면이 아니라 선사상의 근간이 되는 법화사상과 화엄사상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십현담』은 이후 중국 법안종의 청량문익(淸凉文益, 885~958) 선사가 주석을 달았으며 우리나라에는 조선 시대 이후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종 6년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설장 스님이 다시 주석을 붙여 한문으로 쓴 『십현담요해』는 선종의 핵심사상이 담겨져 있어 널리 알려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발견된 언해본은 설장 스님이 쓴 『십현담요해』를 대중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서명에 "성화 을미년 도절(桃節) 재생패(哉生癸) 청한자(淸寒子) 필추(苾錫) 설장(雪岑)이 폭천산에서 주를 쓰다"라고 돼 있다. 이는 설장 스님이 『십현담요해』를 쓴 이후 꼭 73년 만에 다시 한글로 번역됐음을 의미한다.

원택 스님은 "이번에 발견된 언해본은 조선 세조~성종 때인 15세기 중후반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불경류를 한글로 옮긴 언해본이 아니라 16세기 전반기에 드물게 언해된 선종 서적이어서 의미가 있다"며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으면 문화재지정 신청을 통해 후손들에게 소중한 유산을 잘 전하도록 애를 생각"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언해본에 대한 의미와 보급을 위해 오는 10월 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이와 관련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서울대 국문과 박진호 교수수를 비롯해 4~5명의 학자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신동, 매월당, 청한자로도 유명한 설장 스님은 21세에 출가해 47세 때 잠시 환속했으나 세상을 떠나는 59세 때까지 평생 승려의 신분으로 지내다 1493년 3월 부여 무량사에서 입적했다. 스님의 저술로는 『금오신화』를 비롯해 『법화경별찬』, 『화엄석제』, 『대화엄법계도주』, 『십현담요해』, 『조동우요해』 등이 있다.

BBS, 공석 중인 사장 선임 난항

불교방송, "무보수, 경영 책임" 진흥원, "추천 거부로 관계 악화"

2007년 12월 이후 공석으로 있는 불교방송(BBS, 이사장 영담스님) 사장 후보추천권을 갖고 있는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이 신임 후보자 추천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10월 6일 오후 2시 다보빌딩 1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명의 예비후보를 물색해 의사를 타진했지만 대부분이 불교방송의 사장직무 규정과 임금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면서 "불교방송 이사회가 요청한 기한 내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불교방송은 9월 8일 이사회에서 진흥원이 한 달 내 후보를 추천할 경우 즉시 이사회를 열기로 결의한 바 있다.

진흥원은 후보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사장직무규정과 '연봉 1원' 전무 영입설로 불거진 연봉문제 등을 들고 "BBS처럼 복무규정을 가진 곳이 많지 않다. 차치 소신경영, 책임경영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BBS에 사장직무규정 개폐(改廢)와 보수문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BS 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규철 진흥원 상임이사는 "복무규정이 있으면 책임경영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 뿐 아니라 책임을 지는 데도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하고 "복무규정 폐기 전에는 사장 후보 추천이 사실상 어렵지만, 진흥원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금문제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자위와 보상은 제공돼야 한다"면서 "임원의 임금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예산안

에 반영된다. 왜 1원 전무 이사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이사는 이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BBS가 지금까지 뚜렷한 명분 없이 추천 후보를 거부한다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면서 "이사를 중에는 진흥원과 BBS의 특수관계를 일관적으로 전환하지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고 진흥원 측 분위기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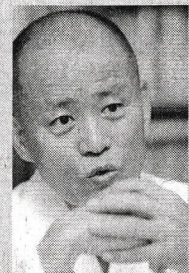
한편 진흥원이 문제 삼은 사장직무규정은 신임 사장 선출을 위해 지난해 8월 29일 열린 BBS 제66차 이사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사장 보고의무 등을 담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사장은 이사에게 △월간 수치현황 및 업무 △예산승인신청서 및 경영계

획서 뿐 아니라 △업무활동비 외의 업무추진비용 내역 △출장 및 휴가 △기타 이사장 요청 내용 등을 보고해야할 뿐 아니라 인사 및 직제개편에 있어 △인력 증원 △부정급 이상 인사 등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BS 이사장 영담 스님은 8일 오후 5시 기자들을 만나 "사장 직무 규정에는 대다수 전임 사장들이 무소불위 인사전환을 일삼아 일정부분 견제장치를 만든 것"이라며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장 보수와 관련해서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진흥원 이사장이 사장을 맡던가 추천 후보의 경영실적을 따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영담 스님은 진흥원이 후보추천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역사성과 관련성, 상호관계 설정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도올, '효경' 주제 강연회 10월 24일 영암 도갑사에서



도올 김용옥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영암 도갑사에서 최근 출간한 『효경(孝經)』을 테마로 도갑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강연회를 연다.

이번 법석은 도갑사 주지 월우스님이 해남 대흥사에서 지낸 때부터 맺었던 깊은 인연에서 비롯됐다.

우연이지만 영암은 또다른 인연이 있다. 백제 왕인(王仁)이 <논어> <천자문>과 함께 <효경>을 일본에 전했는데, 민간전승에 따르면 왕인은 전남 영암인으로 월출산의 정기를 받았다고 한다.

도올 김용옥은 진정한 효는 아래서 위로의 복종이 아닌 위에서 아래로의 무한량함은 해에 따른 최소한의 값이며, 이는 불교경전 <부모은중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청담대리점 대표 이원숙

서울 보증보험 강남지점(강남역2번출구) 02) 3420-2020 fax 3420-2021

010-7470-1992 cda0809@hanmail.net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이만구

010 - 9921 - 9990
02) 739-2900
tot20009@hanmail.net
www.metlife.co.kr

MAGIC 지점 FSR / MDRT / AFP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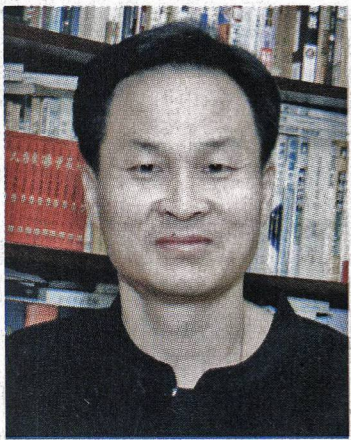
서울대은퇴설계전문가과정수로

우수인증설계사 / 부동산학석사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

총지 FOCUS / 제3회 국제재가불교 지도자 대회 인터뷰

“재가불자가 불교실천의 중심돼야”



화령
(대회조직위원장)

● 화령 정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이 대회는 한 마디로 어떤 대회인가요?

예. 이 대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여러 나라의 재가불교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생활불교의 철학과 실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들의 활동상을 서로에게 소개하는 장입니다. 재가불교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승속을 초월하여 생활불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재가불교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이 대회에 참여하여 생활불교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십니다.

● 생활 불교란 어떤 불교를 말합니까?

생활 불교란 우리 총지중에서 모토로 하고 있는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Buddhism in daily life, Daily life with Buddhism’ 이라고나 할까요. 말하자면 관념적이고 고답적인 불교가 아니라 그야말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실천되는 그러한 불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출가를 하여 불도를 닦지 않더라도 재가자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사회참여를 통하여 바로 이 자리 이 땅에 불국정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생활불교입니다. 중생들 가운데에서 중생들과 함께 숨쉬며 보살도를 실천하겠다는 참대승의 각오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생활불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려면 불교신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가불자들이 불교실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올해의 주제는 무엇이고 다른 해에 비해 어떤 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올해의 주제는 재가불교와 사회참여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두 번의 대회가 재가불교의 위상과 철학적, 사상적 기반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대회에서는 재가불자들이 어떻게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불교 포교에 앞장 설 수 있는가, 그리고 재가불자로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 대회일정과 장소 등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0월 22일 올림픽 공원 내의 올림픽 파크텔에서의 환영만찬과 내빈소개회를 시작으로 23일 같은 호텔 올림픽 파크텔에서 오전 9시부터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그런 다음 오후에 오대산 월정사로 이동하여 템플스테이를 통하여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고 강릉 일대의 박물관과 유적지 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도 계속하여 소주제에 대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하게 됩니다. 25일 저녁 강릉 현대호텔에서 한국전통 예술공연과 함께 환송만찬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26일 해산하게 됩니다.

● 참가국과 참가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중국, 대만 등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10여개 국가 30명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제발표를 하게 되고 옹저버로서 참여하시는 국내의 분들이 100여명 됩니다. 세미나가 끝나면 나머지 일정 동안 국내의 참여자들 50여명 정도가 함께 다니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 지난대회의 주제는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이었습니까?

대회를 마치고 각국의 재가불자 지도자들이 1년 동안 행했던 사항과 어려웠던 점등,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직도 이 대회는 재가불교의 철학과 사상적 기반에 대한 모색과 정립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

처님께서 재가불자들을 위하여 수많은 법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전통이 출가승 위주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교신자들은 출가하여야만 불교를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수행도 출가승들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신생활 때문에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불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재가불자들은 재가불자로서의 실천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가승들에 대한 흉내내기를 하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지요. 그래서 재가불교에 대한 철학과 사상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재가불자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대회의 주요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지난 대회를 마치고 이런 문제에 대하여 외국의 불자들과 꾸준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재가불교의 사상적 기반을 확고히 해서 생활불교를 제대로 실천하고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를 건립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저희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세계 속의 많은 재가불자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재가불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작년 대회를 마치고 독일의 랑펜 센터에서 초청을 받아 유럽의 불교활동에 대해 둘러 보고 온 것이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세계적인 불경기의 여파로 참여를 희망했던 많은 외국인 불자들이 다음으로 기회를 미루게 되어 대회 규모가 좀 더 커질 수 있었

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유감입니다. 재가불교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할애하여 참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참여경비도 스스로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대단한 열성과 불심이 있다고 봐야지요. 이러한 분들의 불교에 대한 열정은 출가승들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을뿐더러 어떤 점에서는 더 훌륭하게 수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다른 나라의 재가불교지도자의 위상은 어떠한지, 우리나라의 재가불교는 어떻게 위상을 정립해야 할까요?

화, 유원지화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불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인터넷이 없는 절이 드물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과거의 한적하고 수행하기에 좋았던 도량은 세상과 너무나 가까워졌습니다. 더구나 출가한다고 하여도 사원을 경영하려면 세간의 잡다한 모든 상식에 밝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선방 이외에 전문적인 수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불교는 대중들과의 소통이 없이는 포교가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빈약한 교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중들을 더 많이 포섭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대중들과 소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불자들도 그저 출가승단을 외호하며 보시나 잘하면 된다는,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 복을 얻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재가불자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불교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가불자들이 어떻게 하면 재가불자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일상 생활과 수행을 조화시키고 병행하여 깨달음이라는 궁극의 목표에 이를 수 있나를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 오늘날의 포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교리에 투철하다면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살고 싶은 행위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더구나 불법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가하여 전문적인 불교수행을 한다는 얼마나 고귀하고 어려운 일일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출가만이 불교수행의 유일한 길이라면 출가하지 못한 많은 대중들은 출가승의 뒷바라지만 하다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재가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청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중생들에게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타시피 출가의 여건도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유명한 사찰은 대부분이 관광지

든지 바른 불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 성향으로 종교인구가 줄어들고 불교인구도 따라서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기독교는 이미 쇠퇴할 대로 쇠퇴했지만 불교는 굉장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불교인구가 오히려 기독교 인구를 앞섰다고 합니다. 그것은 종교상의 수많은 착오 끝에 유럽인들이 불교를 접하고 진실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교는 밖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스스로 깨달음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와 함께 자비심을 발휘하여 이웃과 함께 더불어 행복의 길을 찾는 것이 불교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도 방향설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불교는 과거보다도 더욱 활기찬 종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활불교 운동을 펼치려고 하는 것도 대중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수많은 재가불자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진리의 길에 바르게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회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이지만 서구의 많은 불자들이 사회의 최상층 지식인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도 이제 고급화되고 생활 가운데에서 실천되는 그러한 불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와 대중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한 소통은 끊임없는 교육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불자

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시중에 훌륭한 불교교리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

니다. 물론 선

결문제로서 재가불자들

이 스스로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참대승을 실천하는 참불자가 되어야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네팔을 만나보세요!!!

네팔 만다라 특별 순회전

* 개막 법회 : 10월 21일(수) 오후 3시 / 서울 총지사 3층 서원당(법당)

네팔의 만다라를 밀교종단 불교총지중에서 만나보세요!!!
가슴 벅찬 법열(法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다라는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불화(佛畵)를 말합니다.
'만다'는 '본질(本質), 심수(心髓), 정수(精髓)'의 뜻이고,
'라'는 '얻는다'라는 뜻으로, '본질을 얻는다. 일체제법을 구축한다'는 의미입니다.

※ 본 전시회는 한국과 네팔간의 불교교류 증진과 한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네팔노동자들을 돕기 위하여 네팔관광청의 요청으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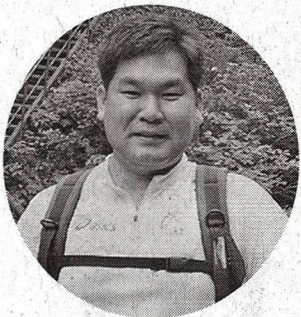
장소 : 불교총지중 서울 총지사 2층 전시관
기간 : 2009. 10. 21(수) 오후 3시~11. 1(일)
시간 : 매일 오전 9:30-오후 7시

/주최:네팔관광청 /주관:불교총지중 통리원·밀교연구소·(주)한네인투어
/후원:한국불교종단협의회·주한네팔대사관·아시아인권문화연대/



기고 봉정암 순례기

“당신이 나의 관음보살, 아이들이 오세동자”



손광의 각자(벽통사)

불교! 그 속의 밀교, 그 중에서 정통 밀교 종단의 하나인 우리 총지종!

나와 총지종과의 인연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린 시절 밀양 밀행사 길, 그 곳의 가장 큰 기억으로 새벽녘 어머니의 성화에 졸리는 눈을 비비 일어나 함께 새해불공 가던 것이 있다. 고요하고 짙은 새벽 하늘에 별 총총, 동동 조각달 하나와 함께 간 길은 지금도 잔잔한 그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상경 후 서울살이의 외로움과 참출하지 못한 마음 밭에 바람이 일 때, 아주 가끔 동대문 밀인사를 찾아 가던 길에선 지금은 통리원장님이 되신 원승정사님의 인자하신 미소가 선하다. 몇 년이 지나 결혼 후 지금까지 이웃한 벽통사를 반가운 마음으로 찾고 있다.

어느덧 벽통사에도 어김없이 가을이 왔다. 스승님 내외분 그리고 8분의 보살님들, 5분의 각자님들 모두는 한 마음이 되어 이른 새벽부터 그 동안 기다려왔던 1박 2일 일정의 삼사 순례의 길을 나섰다.

길을 시원하게 달려 어느덧 내설악의 입구인 용대리 백담 주차장에 도착하여 준비한 점심을 먹고 버스에 몸을 싣기 위해 서둘렀다.

차창에 비친 백담 계곡의 맑은 물과 하얀 바윗돌에 도시 생활에 찌든 때가 모두 씻겨 가는 기분이다. 백담 계곡의 좁고 굽은 길을 버스를 타고 백담사로 향하는 마음 한 편엔 그 옛날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 보살님들은 무슨 원을 머리에 이고 이 맑고 맑은 길을 걸어 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일었다. 잠시 생각에 잠기자 어느덧 버스는 이번 첫 순례지인 봉정암의 출발점 백담사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백담사는 삼국시대 신라의 자장율사가 지은 고찰로 처음엔 한계령 부근 한계리에 절을 세우고 한계사라 불리다 조선 영조 때부터 백담사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설악산 대청봉에서 절이 있는 곳이 담(潭)이 백 개 있는 지점의 사찰이라 백담사라고 한다. 백담사는 만해 한운운 스님이 입산 수도한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현대사에 영육으로

로 얼룩진 큰 상처를 남긴 전두환 대통령이 2년간 은둔 생활을 한 곳이기도 하다.

모하게도 백담사에서 선자와 불선자라는 인간의 양면을 접하니 법문을 듣는 듯하다. 백담사 옆을 지나 평탄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자꾸만 계곡이 깊어지기 시작한다. 쉽 없이 흐르는 맑은 물을 보니 본래가 청정함은 이를 두고 이름인가. 내 속까지 흰히 들려다 보이는 것 같기도 하여 조금은 움츠러 든다.

어느덧 중간 지점인 영시암에 이르렀다. 이곳 절에 스님들이 가꾼 듯한 가을 배추가 햇살을 받아 더욱 싱그럽다. 영시암 터는 조선 숙종 때 노론이 세력을 잃고 남인이 득세하자 노론에 속하여 처형 당한 양반의 아들이 속세와 인연을 끊고 수도할 뜻으로 암자를 지었다고 하며, 함께 있던 여자 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자 절을 떠나 버렸다고 한다. 영시암을 뒤로 하고 우리는 서서히 입산하는 느낌을 받으며 수렴동 계곡을 따라 부지런히 걸었다.

예상보다 빠른 산행에 담소도 나누고 차가운 계곡물에 발도 담구어보고 잠시 동안 피로를 풀며 설악산의 절경에 그대로 하나가 되어갔다. 얼마나 까마득히 올라 왔을까? 쌍룡폭포가 두 갈래로 물을 뿜으며 승천을 준비하는 듯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노려 보며 떠날 시간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노려 보며 떠날 시간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노려 보며 떠날 시간이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이 아니었다. 옴마니반메옴으로 단련된 그분들이 아닌가!

고갯마루에 오른 후 사자 바위에 올라 서니 설악의 웅장 위용이 스스로를 뽐내는 듯 하다.

저기 눈앞에 첫 순례지인 봉정암이 보인다. 봉정암은 우리나라 암자 중에 가장 높은 해발 1224m에 위치하고 있다. 양산 영취산 통도사, 강원도 평창 오대산 상원사, 영월 사자산 법흥사, 정선 태백산 정암사와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중의 하나이다.

전국 각 사찰에서 스님들의 인솔하에 순례를 온 불자들이 봉정암은 그야말로 문전성시였다.

먼저 우리는 사리탑을 친견하고 잠시 정좌하여 염송하며 부처님의 공명이 널리 퍼지기를 발원했다. 어느덧 초가를 노을이 붉게 서쪽을 물들이며 먼저 하산하고 있었다. “줄을 서시오” 라는 스님의 고함소리와 함께 후루룩 대공공양을 마치자, ‘둥둥딱딱’ 법고소리와 ‘봉저영’ 하며 울리는 범종소리를 뒤로 하고 저녁 예불에 참석하였다.

법회는 사부대중들로 가득하여 본래의 야간법석을 싣감하는 자리였다. 주지스님의 설법에 따르면 적멸보궁(寂滅寶宮)은 번뇌가 사라진 보배로운 집이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곳이기 때문에 불상을 모시지 않는다고 한다.

스님은 또 육신을 살피우기 위해 매일 밤을 먹듯이 마음도 매일 닦아야 하며, 봉정암에 와서 좁은 잠자리 가지고 싸우지 말고 제발 기도 열심히 해서 내려 가는 길엔 양손에 소원 보따리 들고 내려가라고 한다.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도량이라 그런지 숙소가 좁아서인지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법당에 들어가 ‘우리 장모님 건강 돌아와 남은 여성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빌었다.

그렇게 백팔배를 한 후 염송을 하고 보니 어느덧 밤이 깊어 갔다. 내일의 순례를 위해 웅크려 잠을 청해보지만 침지가 없다. 그렇게 뒤척이다 새벽 소나기 소리에 귀를 쫓겨나 일어나니 모처럼 보는 새벽이 정답기만 하다. 부지런한 아침을 맞이한 후 사리탑 뒤에서 남은 순례 길을 향한 결의를 다지고 우리는 봉정암을 내려왔다. 간밤에 우리 보살님들도 편히 쉬지 못한 탓일까. 하산길이 쉽지만은 않아 보였다. 그러나 벽통사 각자님들의 도움으로 내설악의 골짜기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그곳 다람쥐와 인사를 하며 두번째 순례지인 오세암에 이르렀다.

오세암은 백담사의 부속암자이며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지었다. 그 때

는 관세음보살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도량이란 뜻으로 관음암이라 불려지다가 조선 인조 때 설정 스님이 중건하고 오세암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여기엔 오세 동자가 폭설에 갇히게 되었으나 관세음보살의 신력으로 살아 났다는 전설이 있다. 그리고 한운운 스님이 백담사와 오세암을 오가며 남의 침묵을 타고 한 곳이기도 하다.

아~ 인생이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런가. 육도윤회의 수레바퀴를 언제쯤 멈추려나. 부처님 법 만나기가 백전만겁을 지내어도 어렵지만, 금생에 복이 많아 관세음보살 육자진언 생활 속에 참만하네. 오세암의 흰옷 입은 관음보살 출현과 화려한 탕화에 법일 정사님은 암자를 떠나기가 못내 아쉬워하셨다.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실감하고 우리 다시 처음 출발한 백담 주차장에 무사히 돌아왔다. 그리고 백담사 근처 용대리에서 점심 공양과 휴식을 한 후 세 번째 순례지인 낙산사 흥련암으로 길을 달렸다.

흥련암은 강화 낙간산 보문사와 남해 금산 보리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의 하나이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7월 7야 지성기도를 드렸다가 깊은 바다 속에서 붉은 연꽃이 솟아 오르고 그 속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한 후 흥련암이란 암자를 지었다고 한다. 2005년 4월 5일 낙산사 화재때도 흥련암과 의상대만은 재난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두고 어느 각자님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화재이후 복구된 흥련암 가는 길은 예전의 자연스러움과 조금 다른 느낌도 있었지만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가없는 중생 구제에 노심초사 하시는 관세음보살님 그대였다. 그리고 낙산사 보타전에는 7관음상(천수관음, 성관음, 십일면관음, 여의륜관음, 마두관음, 준제관음, 불공견색관음)과 32관음 응신상, 1천 5백 관음상이 봉안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일반 사찰과 다르게 7관음상 뒤를 돌며 친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었으며, 법일 정사님은 미래 총지종 사원의 모습도 그려 보셨다.

이렇게 벽통사의 스승님과 보살님들, 각자님들은 초가를 삼사 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흥련암 동해 바다를 돌아보고, 설악의 울산바위 마저 내려 놓고 다시 본래의 길로 돌아 왔다.

그날 저녁 집에 오자 마자 우리 집 새내기 보살님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의 관음보살이요, 우리가 사는 이 가정이 적멸보궁이요, 고요히 잠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오세 동자 아니겠소?

세상사는 이야기

며칠 전 종로에 있는 실버센터에서 봉사를 했다. 그 곳에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 중에서 치매를 앓는 분들께서 계시는 곳이었다. 연세는 평균 85세이시고 92세 되신 분도 계셨다. 연세가 많으시고 치매도 있으셔서 많은 걱정을 했다.

우리가 하는 봉사는 책을 읽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치매 있으신 어르신들이 과연 재미있어 하실지 걱정이었다. 준비한 자료들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노래도 하고 게임도 하고 손 유희도 하며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니 차츰 잘 따라 하셨다.

책을 읽어 드릴 때에는 어린 아이처럼 좋아하시고 인형극을 할 때는 모두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되었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봉사는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걱정이 많았는데 여러가지 준비도 많이 하고 연습도 충분히 한 탓인지 처음에는 얼굴 표정의 변화가 조금도 없으셨던 어르신들께서 대답도 하시고 마음껏 웃으시기도 하셔서 우리들 마음도 밝아 졌다.

지난달에는 어린이 시설에 갔었는데 그곳에서는 활기 차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이 너무 주의산만 해서 우리 봉사 선생님들을 힘들게 했었다. 특히 청개구리처럼 무엇이든지 반대로 말하고 떠돌고 친구들을 때려서 울리기도 하는 몇몇 어린이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크게 당황 했었다. 우리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와 눈도 맞추고 이름도 불러주고 작은 일이라도 칭찬을 열심히 했더니 책 읽어 줄 때에도 잘 듣고 퀴즈도 잘 풀고 아주 협조적이었다. 그 다음에 갔을 때에는 일찍 와서 인사도 잘하고 우리들을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하는 봉사의 보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버문화 봉사단 북북’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책 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 북북’은 문화부와 문화복지협의회 주최로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 되는 봉사이다. 책 내용을 구연 동화나 간단한 소품을 이용한 연극 형태나 인형극으로 만들어 책을 좀더 가까이 하게 해준다. 책을 통해서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온 국민이 책과 가까이 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 봉사단의 목표다. 책 읽기의 사회적 분위기 탓인지 우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북 북’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가히 폭발적이다. 오늘도 우리가 어르신들과 진행하는 1시간 내내 취재의 열기가 대단했다. TV 방송국 두 곳, 신문사 한 곳, 문화부에서 파견된 기자 한 분이 서로 앞다투어 촬영하고 사진 찍고 수첩에 기사 작성도 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처음하는 어르신들 봉사이기 때문에 취재열기가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차차 익숙해져서 아주 즐겁게 진행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필요한 기관에서 신청하면 ‘인 1조’가 되어서 그곳에 파견 되어 진행하는데 신청하는 곳이 너무 많아 금년 말까지만 우선 접수를 받았다고 한다. 끝나고도 취재열기는 계속되어 우리들에게 여러가지 질문도 하고 촬영이 쏟아졌다. 여러 방송국과 신문사가 따로 취재하는 탓으로 그날은 늦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특히 개별 취재 때는 어떤 질문이 나올까 걱정되었지만 그런대로 잘 해낸 것 같다.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우리 봉사자들을 보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헤어질 때는 어르신들이 손을 붙잡고 또 와 달라고 할 때는 가슴 가득 뿌듯함으로 채워졌다. 다음에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봉사가 되어야겠다.

오늘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문화부 장관님께서 우리가 하는 봉사에 대해 들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고 한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꼭 한번 참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많은 부담은 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보람 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신이 난다.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함에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팀은 다시 모여서 리허설을 하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세상사는 보람이 대단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박묘정

치매, 중풍, 뇌졸중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가정처럼 포근한 만다라요양원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부설 흥국사 만다라요양원은 10월 19일 개원하여 어르신들에게 가정처럼 포근한 자비와 사랑을 제공하여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전국 어느곳에서나 가능함.
(장기요양등급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1등급: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

2등급: 걷지 못하고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

□ 입소정원 : 6명 (선착순 입소함)

□ 본인부담금 : 1등급 : 40만원, 2등급 : 월 35만원

□ 연락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1가 150-2, 흥국사

전 화 : 063-224-4358, 016-651-8053. 담당자: 지정 정사

The 3rd Lay Buddhist Forum

제3차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 대회기간 _ 2009년 10월 22일(목) ~ 26일(월)

■ 장 소 _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룸(올림픽공원)



Lay Buddhism and Engaged Buddhism

재가불교와 참여불교의 역할

제1부 주제발표

• 일시: 10월 23일(금) 오전 9시 ~ 오후 3시 •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룸(올림픽공원)

제2부 템플스테이 및 세부 토론

• 일시: 10월 23일(금) ~ 10월 24일(토) • 장소: 오대산 월정사

제3부 한국문화체험

• 일시: 10월 25일(일) ~ 10월 26일(월) • 장소: 설악산 신흥사 및 강릉 현대호텔 에머랄드 홀

